내가 왜 무슬림이 되었는가?

(이슬람 개종 이야기)

알리 쾨세 교수

DİYANET İŞLERİ BAŞKANLIĞI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종교부 출판: 1862
공용 도서: 478

총 감독
후리예 마르트 교수

편집장
파티흐 쿠르트 박사

감독
유누스 육셀

지은이
알리 쿄세 교수

번역
제이넵 알데미르

수정
손태성

교정
데리야 손

그래픽
우우르 알튼토프

인쇄
Salmat Bas. Yay. Amb. San. ve Tic. Ltd. Şti.
Tel: +90 312 341 10 24

1판, 앙카라–2020

위원회 결정: 20.08.2020/83

2020-06-Y-0003-1862
ISBN: 978-625-7137-84-3
Certificate No:12930

연락처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방언 간행부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
전화: +90 312 295 72 81
팩스: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내가 왜 무슬림이 되었는가?

(이슬람 개종 이야기)

터키 종교부

목차

머리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우리는 군대들이 싸우는 것이 아닌 이미지들이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무슬림들은 이 싸움에서 가장 많이 지는 자들에 속한다. 세계주의의 팽배해짐을 느끼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대로 인식하기를 꿈꾸는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를 유령처럼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그 친숙한 이미지들은 세계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이 변화의 중심은 우리가 항상 우정을 쌓기 위하여 추구하는 지리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서구...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부정적인 측면은 9.11 사건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미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꾸란이다. 전능하신 알라가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실로 그 메세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꾸란,15:9)

서구와 꾸란은 오늘날 함께 서 있을 수 없는 두 개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온갖 부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자신을 무흐타디(이슬람을 선택한 자)라고 보는 사람이 예전보다 적지 않다. 심지어 이슬람을 선택한 자들의 수가 증가한 국가들도 있다. 그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란이다.

그들에 따르면, 꾸란은 존재의 비밀을 설명하고, 존재의 "왜" 와 "어떻게" 를 설명하고, 일상 생활을 정리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는 책이다. 꾸란은 조직적인 종교 즉 교회가 인간의 비인간적인 욕구를 위해 율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서구인들에게는 무슬림보다도 더 의미있는 책이다.

이 책으로 꾸란이 상당량의 서양 무슬림들을 이슬람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살아있는 유럽과 미국 개종자들의 삶의 이야기와 이슬람을 선택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일부 이야기는 영국에서 박사 학위 논문 [1]인터뷰로 구성되는 반면 일부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게시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사람들은 사회과학의 인터뷰 방법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실제 이름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의 실제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

알리 쿄세 교수
마르마라 대학교 신학관

1 쿄세 알리, 이슬람 입교: 영국 이슬람 입교 연구(A study of Native British Converts), 런던: Kegan Paul 1996.

...누군가가 나에게 " 언젠가 너는 무슬림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었었을 것이다...

찰스

나는 영국 옥스포드셔 주에서 기독교 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열네 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내가 장남이기에 동생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였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이정표조차 없었다. 나는 평범한 기독교인을 뿐이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언젠가 너는 무슬림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었었을 것이다.

열네 살이였을 때 학교를 그만하고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1945년) 열 여덟 살 때 군대에 징병되었다. 나는 먼저 독일, 그 후에는 당시 영국 위임통치령이었던 팔레스타인으로 갔다. 1948년까지 팔레스타인에서 군인으로 살았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셨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왠지 그 곳을 좋아하지 못 하였다. 왜냐하면 영군은 뒤에서 총을 맞고 있었고,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가능한 빨리 그 곳을 떠나고 싶었다. 이제, 그곳은 세상에서 내가 가고 싶은 마지막 장소였다. 마침내 스물 한 살에 제대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1973년에 어머니를 잃은 뒤 종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명목상 기독교인이였고 하나님께, 항상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1975년에 운명이 나를 팔레스타인과 다시 만나게 하였다. 기독교는 나에게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에 속한다고 가르쳤다. 모든 서양인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서양 여론과 기독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에게 점령당하였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의 싸움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에 광고 게시를 함으로써 텔아비브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드디어 텔아비브에서 일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나는 유대인과 친구가 되지 못하여 영국으로 돌아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을 때, 내면의 소리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실수라고 말해 주었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건설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가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다음 해 텔아비브로 돌아갔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 오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일하는데 아무 불만은 없었지만 무엇인가가 이상한 것 같았다. 비행기에 탔을 때 같은 목소리가 “넌 잘못하고 있어, 여기에 남아 있어야 돼!”라고 속삭였다. 결국 영국에서 또 다시 건설 회사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일년 후 이스라엘에 살던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에 다시 오면 텔아비브말고 킵부트즈(kibbutz)라는 농장들이 있는 작은 지역으로 가.” 라고 말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친구가 말한대로 농장들이 있는 지역으로 갔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팔레스타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어진 정착지의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건축을 검사한 이후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였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망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인간으로서 팔레스타인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를 친구처럼 따뜻하게 환영했고 애정을 보여줬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 내 종교와 그들의 상황에 우리 나라의 역할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행기를 납치하고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진 우리의 적들은 진짜 이 사람이들인가?" 팔레스타인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점점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 중 한 사람이 나를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골에 초대하였다. 그와 함께 시골로 출발하였다. 사람들이 집 앞에 앉아서 저녁 차를 마시던 한 여름 날이었다. 앞을 지나가는 집마다 우리를 초대하였고 나는 이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냥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나에게 낯설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들어가자마자 가난함이 보이는 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부를 가진 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차와 쿠키를 대접하였다. 다섯 살이나 여섯 살인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반대편에 있는 구석에 조용히 앉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떠날 시간이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나를 향해 걸어와서 내 앞에서 아랍어로 무언가를 말하였다.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나를 그 곳으로 데려간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은 유수프예요. 당신에게서 좋은 밤 키스를 받고 싶어해요."라고 하였다. 한 순간 모든 것이 얼은 것 같았으며 조용함이 그곳을 둘러쌌다. 나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키스할 수 있는가? 상상하는 것마저 너무 이상하였다. 나는 그 순간 꼼짝도 하지 못 하였다. 어떻게 영국인 내가 무슬림인 이 아이를 키스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 말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나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한 아랍인이랑 똑같은 수준에 있었다. 이제 작은 유수프의 수준에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작은 유수프는 팔을 내 어깨에 놓고 내 가슴에 기댔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입맞췄다. 모든 것이 그 순간 바뀌었다.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나를 서게 한 것처럼 다시 일어났다. 유수프는 내 품에 있었다. 나는 울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리고 말았다. 그 순간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신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신의 사람들이다!" 이제 이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탄이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 순간 내가 이 땅에 왜 세 번이나 왔는지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를 유혹한 것은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동안 울었는데 온 가족도 나와 함께 울었다. 모두가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한 시작일뿐이였으며 이슬람으로 입교의 시작이었다.

그 후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시골을 방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시골 주민들을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시골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결혼식과 약혼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바로 거절할 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이슬람을 말로 가르치는 것 대신 행동으로 가르쳤다. 그때 이슬람을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알라)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무슬림들(이슬람 신앙인)의 행동을 통하여 이슬람을 좋아하게 만드셨다. 내가 원래 여기에 온 이유와 여기에 오고 벌어진 일이 서로 너무 달랐다. 이제 나의 길을 찾았고 진실을 알게 되었었다.

유대인들은 벌어진 이 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다. 어느 날 경찰관 두 명이 나를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나는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았다. 결국 내가 도와주러 온 유대인들이 나를 추방하였다. 영국으로 돌아갔다. 아직 신앙을 고백(칼리마 알 샤하다)하고 무슬림이 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이제 영국은 나에게 낯설은 곳이 되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내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무슬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 거주 중인 무슬림들을 찾기로 하였다. 나는 몇몇 무슬림 조직에 연락하여 그들의 활동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무슬림들과 다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신앙을 고백하여 무슬림이 되었다. 결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집인 “이슬람”으로 돌아왔다.

…처음에 무슬림들을 만나지 않고 꾸란을 읽어서 무슬림이 되었다…

무함마드

나는 장로교도인[1] 어머니와 잉글랜드 성공회를 따르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종교와 강한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일곱이나 여덟 살이었을 때 그들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 의식에 데려갔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된 무엇이 있었다. 성직자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도 우리 가족은 나를 억지로 "주일학교"로 끌고 갔었다.

나는 결코 나의 믿음과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한 종교에 의문을 품었다. 이슬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슬람이 이질적인 종교라는 것과 무함마드가 꾸란을 유대인에게 들어온 이야기들로 썼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이슬람을 "Muhammadanism(무함마다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가 열한 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헤어졌고 나는 어머니 옆에 남았다. 내가 열 네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소원으로 종교를 더 많이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하기로 결심하였다. 한

1 개신교의 한 교파

교회에 등록하고 일년동안 선교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경험이었다. 그 후 신학과에 입학하였는데 성직자나 종교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나님께 정직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되는 것은 양치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때문이다. 성직자이면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졸업 후 교사의 길을 택하였다.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 휴일에는 수도원에서 머물기까지 하였다.

대학교 시절에 헬라어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했다. 내가 성경을 집어들 때마다 다른 판본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그때는 그것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옛날 성경들은 더 단순하고 간단하였으나 오늘로 와보니까 추가와 제거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 상황은 때가 오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될 것이었다.

교사 일을 하는 첫 번째 해였다. 새 학기가 시작했었는데 종교 수업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들 사이에서 나뉘어졌다. 나는 누가복음과 이슬람을 맡았다. 대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한 아무 과목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슬람을 가르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다.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고 누가복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일단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가복음에 대한 학습 자료가 많지 않아서 내 지식으로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썼다.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깊은 연구를 하였다.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한 시각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다양한 자료, 논평과 비평을 참고해서 그것을 다른 복음들과 비교해 보았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감정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으로 대단하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복음들에서는, 특히 누가복음에서 본문이 부족한 것 같았다. 예컨대 파울로스에 의하여 기록된 성찬례 (레드 와인과 빵 의식)와 관련된 문서는 복음들이 기록되기 전에 쓰여졌으며 이것들은 복음들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현은 파울로스에게 인용되었다. 사실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에 의해 쓰여졌으며 이것들은 누가의 글에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의 모든 오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때 이슬람이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다.) 예수가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계시)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말씀"이 예수라는 것에 설득된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설득되었다. 그것을 증명할 증거는 못 찾았다. 그래서 나는 두 개의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예수에게는 신성한 본성이 없으며 십자가에도 못 박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고, 그것은 아직도 내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만약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점이 이상해 보여도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그렇게 계속하게 된다.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으로 믿음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부과되어 온 것이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것과 그것은 오직 상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뇌된 것이었다.

이슬람에 대한 수업의 준비를 위하여 꾸란의 번역본을 가졌다. 먼저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았는데 읽은 부분들이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관련 구절들은 예수님이 "알라(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과 그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신기하였다. 이 책은 누가복음을 읽고 발견하게 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만약 무함마드는 꾸란의 저자였더라면 내가 발견한 그 정보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날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옛 자료들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료들에 이를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무함마드는 문맹자였다.

나는 내가 누가(Luke)에 대해 썼던 것처럼 꾸란에 대한 논평도 쓰기로 결심하였다. 꾸란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꾸란은 이미 그것을 요구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 관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가져올 것이며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 (바까라 장, 2:23)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읽었다. 나는 또한 몇 페이지의 의견을 썼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나는 그 페이지들을 아직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 하였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할 정도로 모순이 되는 의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 꾸란을 읽는 데 한 문제를 발견하면 그 답을 또 꾸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같은 방법을 누가복음에 대한 의견을 쓰는 데 사용했지만 어떤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 그의 답을 찾는 커녕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꾸란에 대해 공부할 때 평범한 책이 아닌 성스러운 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이제 꾸란을 믿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슬림 한 명이라도 만나지 않고 꾸란만을 읽음으로써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

...메시지의 “메시지”...

함자

1973년에 런던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한동안 같이 살았는데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종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종교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종교는 내 성장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자란 사회는 사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었다. 교회에도 한두번만 갔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적이 없었다.

런던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한 친구가 준 이슬람과 관련된 영화인 “메시지”라는 영화를 봤다. 그는 무슬림이였으나 별로 종교적인 생활을 가지지 않았다. 그 영화를 반복해서 봤는데 그 영화를 볼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내 자신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검색해야 한다고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슬림들의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런던에서 어떤 젊은 무슬림들을 만났다. 이 젊은이들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니였으나 그러나 적어도 "나는 알라(하나님)를 믿으며 예언자 무함마드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는 있었다. 그 후에 캣 스티븐(Cat Stevens (Yusuf Islam))이 하는 종교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 그리고 이 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종교가 말한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았고 나는 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꾸란의 일부를 읽고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때는 계속 신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개종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나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였다. 한 이슬람 성원을 찾아갔다. 내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과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되면 될수록 이슬람이 나에게 논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순간 무슬림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하여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가야할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성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랍어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도 결국 거기에 가서 칼리마 알 샤하다를 말하였다(신앙고백을 하였다). 그 날 성원에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영국 사회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나의 생활 방식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성원을 찾아온 모든 영국인들은 하루나 한 달 또는 한 해 내에 생기는지에 상관없이 언젠가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사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이슬람은 아랍인의 종교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아랍인들만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은 힌두교와 같은 종교라고 본다. 그들은 이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무슬림이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글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알라)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말할 때 그의

의미를 모르고 우습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의 의미가 "하나님(알라)은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슬람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알라"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신"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정말 모른다. 아마도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이 직장다니기, 잠자기, 음주를 포함한 그들의 틀린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것에 있을 수 있다. 나쁜 습관은 이슬람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추천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진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쉽게도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화이다. 진화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반대하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성공회는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한다.

샤하다를 말한(신앙고백울 한) 후 이슬람이 금지한 것들을 그만하였다. 내가 채식주의자여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무슬림이 되기 전에도 이미 그만한 것이었다. 틀린다는 것을 모른채 술을 마시곤 했었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틀린다는 것을 모르고 술을 마신다. 와인을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술이 틀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술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되기 전에 나도 이 사회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랐으나 이제는 알고 있다. 나를 이 날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한다.

...샤하다(신앙고백)를 위하여 준비 되었나요...

파띠마

나는 전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웹사이트도 가지고 있었다. 하여튼, 나는 2001년 6월 달 늦은 저녁 기독교 채팅방 중 하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젊은 남자 하나를 만났다. 그와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에게 대답이 "네"가 될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너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네"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전에 기독교인이였는지 물어보자 그는 "네, 기독교인이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많이 놀라워했고 그에게 "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나에게 한 말을 하나 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다. 그는 아이도 낳지 않으셨고 딸이나 아들도 낳지 않으셨으며 아내도 가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아무도 그분의 주인이 아니며 아무것도 그분과 비교될 수가 없다.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보호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내가 "그래요."하고 그에게 "그쪽이 믿는 종교는 뭐에요?"라고 물어보자 그는 "저는 무슬림이에요."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많이 놀랐지만 놀람을 티내지 않도록 애썼고 "그러면 그쪽은 하나의 신을 믿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예언자이실 뿐이라고 하네요." 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네" 였다. 그 후로 부터 그는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그가 한 말들은 맞는 것 같았으나 내가 바쁘다거나 대답할 시간이 없는 사람인 척하였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와 채팅을 할 때 다른 기독교인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기독교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를 무시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너무 피곤했을 때 그 젊은이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나에게 꾸란을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했는지 이해하지 못 하였다. 사실은 꾸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코란(Koran)" 이라고 쓰이는 줄 알았다. 그런 다음 그는 "꾸란과 인생(Qur' an and Life)" 이라는 채팅방에 들어가서 꾸란과 궁금한 다른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꾸란에 대해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자말" 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음 날 그리고 그 여름 동안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슬람은 나에게 의미있게 들리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이야기했던 첫 무슬림과의 대화로 알게 된 이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꼈었다.) 8월이 되어 학교가 개강하였다. 수업 때문에 채팅방에 예전만큼 들어갈 수 없어서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채팅방에서 만나게 될 때마다 아직도 자말과 채팅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9.11 테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은 이슬람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islamdenounceterrorizm.com(이슬람은 테러를 반대한다.)이라는 웹사이트를

추천한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슬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이슬람과 관련된 채팅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0월의 어느 날 자말과 나는 이슬람에 대해 매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무슬림이 되는 것에 대한 감정이 강해졌고 그에게 무슬림이 되려면 어떡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이 너무 쉽다고 말했으며 그냥 칼리마 알 샤하다(신앙고백)를 말하면 된다고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가르쳤다. 그 후 나는 꾸란을 더 많이 읽기 시작하였다. 11월 초에 자말은 나에게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기 위하여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큰 흥분으로 말하였다. 2001년 11월 3일에(11월 4일 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3일 밤 새벽 4시까지 밤새웠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그 순간 마치 내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평화로웠다. (그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바라며... 아민

...내 인생에 무언가가 빠졌다...

마가렛

나는 1945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좋았다. 부모님은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였다. 아버지는 사회주의자인 유대인이었다. 그는 원대도 유대인 가족 출신이었으며 의사였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였지만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부모님이 결혼했을 때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신을 경배하는 것을 그만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종교적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종교 교육을 하는 주일학교(교회학교)에 가본 적도 없다.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기독교는 정말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으나 찬송가들을 좋아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에 대한 장난까지 하였다.

부모님은 내가 열 다섯 살이었을 때 이혼했으며 아버지는 내가 19살이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다. 그 두 일도 나에게 너무 슬픈 일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그가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며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었다. 나는 이 일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 종교를 결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예술가와 결혼하였다. 그래서 나도 시간을 새아버지와 술에 취한 사람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보내기 시작하였다.

나는 힌두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힌두교는 심리적 의미가 깊은 아름다운 신화드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불교에 대해서도 읽고 있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교를 믿고 있었다. 사실 나는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였다. 나는 또한 한동안 기독교의 몰몬교의 일원이 되었다.

결혼하였다. 남편은 개신교 분파인 침례교의 일원이었다. 우리 둘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교회에서 다시 결혼하였다.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도 어떤 것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부족했다고 느꼈고 영적으로 더 단련되고 더 높은 것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교회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집에서 종교적 규율이 필요하였다. 그런 다음 남편과 함께 Subud(수부드)라는 수프집과 비슷하고 영성을 향상시키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가입했다. 이 그룹 덕분에 이슬람을 만나게 되었다. 수부드[1]는 한 인도네시아 무슬림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운동의 창시자는 수부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은 라마단 달에 단식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무슬림이 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그만하였다. 우리는 이미 무슬림처럼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이슬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무슬림이 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슬람이 엄격한 종교라고 보고 또 이슬람은 힘과 전쟁에 의해 확산된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1 수부드는 1934년에 인도네시아인 무함마드 수부흐(1901-1987)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것은 위대한 생명의 힘 (Great Life Power)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열정,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을 영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깨어나게 된 영적 경험의 한 형태이다. 수부드에는 라티한(Latihan)이라는 명상이 있다.

데 시간이 걸렸다. 사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이 낯선 종교였고 내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는 것에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 이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은 거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다른 국적의 무슬림들로부터 진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사실은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생각은 남편의 생각이었다. 나도 그를 따라 무슬림이 되었다. 나이지리아에 간 것이 무슬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결정을 내리고 스물 여섯 살에 그와 함께 무슬림이 되었다. 내가 그 당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모든 연구를 그가 하였다. 불행히도 몇 년 후에 남편은 한 도둑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는데 그가 죽은 후 나는 꾸란을 읽고 그것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슬림이 되는 것은 나에게 장기적인 발전 과정이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슬람으로 입교한지 6년 만에 히잡을 착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또한 나에게 일자리까지 주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알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슬림이 된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많이 냈으며 2년 동안 나와 말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상황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일에 대해 알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친구들의 대부분은 수부드 구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모든 것이 완벽하였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아랍인일줄 알아서 고향이 어디인지 묻는다. 이슬람에 따라 입은 채 옥스포르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보고 "걸어다니는 커튼"이라고 조롱하였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나를 항상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 출현 점...

힐러리

인생에서 하였던 가장 믿기 힘든 일은 사실 매우 간단하였다. 나는 두 증인 앞에서 매우 쉬운 일을 하였다: 샤하다를 말하였다(신앙을 고백하였다). 나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종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순간 나는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칼리마 알 샤하다(신앙고백)를 말할 때까지 확신하지 못 하였다. 어느 아침 일어나서 내 결정을 바꾸고 싶을 지는 모른다. 언젠가 정말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슬림이 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행복과 평안함과 가득하였다. 그 강렬한 감정은 나흘 동안 지속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출현 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느꼈던 내 마음의 특별한 부분이 출현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바꾼 그 신앙 고백 의식은 몇 분만 걸렸으나 인생에 대한 나의 탐구의 끝이었다. 부모님은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와 여동생을 무교인으로 키웠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깜깜한 순간에 나는 바다에 유휴 상태로 있고 어디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배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학에 다닐 때 종교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이슬람과 매우 닮은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철학에 관심이 생겼다. 또한 불교와 같은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는 몇 가지 생각에 관심이 있었으며 자기 개발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과거에 나는 남자들과 몇 번인가 문제가 있는 연애를 겪은 적이 있다. 남자 친구를 떠났을 때 로빈 노우드 작가의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 책을 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이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자 옆에 있는 여자들"을 위한 책인 줄 알았다. 책을 다시 읽어보니 나도 그런 여자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책이 추천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책은 우리의 영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또 이 책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장려하는 삶의 철학의 실행이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신성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내가 영적으로 속한 곳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연구자가 되어버렸다.

그 후 갑자기 무슬림 남자와 친구가 되어버렸다. 사실 나는 그가 무슬림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술을 마시는 파티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 대해서 이슬람을 따르는데도 가끔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는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었다. 이전에 무슬림 친구 한 명이라도 없었으며 이슬람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였다. 나는 이슬람을 암흑 시대에서 남은 것과 여성을 억압하는 구식 종교로 보았다.

이슬람을 여성 혐오증의 종교라고 보는 것은 일종의 내 집착이었다. 친구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특히 나에게 반여권주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종교가 어떻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클래식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은 어떻게 한 남자가 네 명의 아내를 갖는 것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

솔직하게 말한다면 나를 그 남자와 4년 동안 함께 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대화와 토론이었다. 그는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명에서 예를 들면서 내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가면서 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나는 내 생각들의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남자가 4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주제들에만 갇혀 잘못된 결론을 도달했기 때문이다.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일부다처제를 장려하지 않으며 의무적인 경우에만 용인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질문들이였으며 물음표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물어볼 계획이었다. 여자는 왜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가? 여자들은 왜 남편 한 명 이상을 갖지 못하는가? 그러나 나중에 여자가 왜 한 명 이상의 남편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였으며 아버지들은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 논쟁을 할 것이었다. 이 이유들을 생각해보니 이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요르단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무슬림이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나의 믿음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해하게 되었다. 요르단은 머무르는 것이 정말 즐거웠던 곳이었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과 아단(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을 감상하는 것은 완벽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결정을 쉽게 하게 만들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런던 북쪽에 있는 중앙성원에서 3일 동안 한 강의에 참석하였는데 강의가 끝났을 때 이제 나의 결정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강의에서 대단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사실은 내가 만난 무슬림들의 대부분은 개종자들이였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우리가 무슬림 사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매일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 대신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맞는 사람을 찾는 데 도와준다.

내가 무슬림이 되었을 때부터 옷을 이슬람에 따라 고르기로 했으며 이슬람에 맞게 입기 시작하였다.

히잡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고 이성의 관심을 받을 목적이 없으며 다른 이를 질투하게 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여자에게만 옷을 소박하게 입으라고 조언하지 않고 남자에게도 그렇게 입으라고 조언한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까봐 걱정해서 히잡을 쓰는 것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내 자신에게 “이 결정을 내가 내린 것이고 이것(히잡)은 내 결정의 표시이다.” 라고 하고 편해졌다. 지금은 히잡 착용 결정에 대한 나의 자신감이 많아졌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카디자

1952년에 런던에서 중산층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이혼했는데 나를 키워준 어머니와는 사이가 완벽하였다. 부모님 둘 다 천주교를 믿고 있었지만 둘 중 하나도 종교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종교적인 분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보내졌는데 나 또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불평이 없었다.

어른이 되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쓰기 시작했으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천주교의 원칙의 실행도 떠났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방황하고 있었고, 특히 찾고 있어던 것은 없었다.

나의 이십대 때 무엇인가가 부족했고 목적이 없었다. 사회가 너무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 중이였던 1972년과 1973년에 모두가 국가의 제재 부과를 하는 구조에 반대하고 있었다. 무슬림들을 만나기 전에 내 머릿속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슬림들이 야만인이라는 생각을 주입시켰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알라가 기독교의 신과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무슬림과의 첫 만남은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런던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였는데 이슬람 생활 양식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도움으로 많은 무슬림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몇 개월 후, 우리는 1974년에 결혼했다. 나는 이 결혼으로 인해 명목상으로나마 무슬림이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녀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나에게 "너는 중세의 어두움으로 돌아가고 있어."라고 하였다.

결혼하고 나서 꾸란의 영어 번역을 읽었다. 결혼한지 일년 뒤에 남편은 이슬람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보여준 변화 후에 내가 술 마시는 것을 그만하였다. 나는 그에게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고 무슬림이 되는 것의 의미를 같이 배웠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무슬림 여자들의 주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슬람에 대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웠다. 읽는 것은 이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슬람을 더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명목상으로 무슬림이 되지 않고 마음과 실천으로도 무슬림이 되었다. 그 때는 26살이었다. 내 생각에는 이슬람의 가장 매력적인 면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사안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나는 여전히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다.

결혼하고 6년 후에 두 자녀의 엄마인 내가 이혼했지만 종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 나처럼 이혼한 두 아이의 아빠인 무슬림 영국인과 결혼하였다. 지금 나는 무척 행복하고 하나님(알라)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뛰어들어 수면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함마드 이사

나는 1948년에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으나 런던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둘 다 학자였다. 나는 장남이었고 여동생 두 명이 있었다. 부모님은 윤리적 가치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나는 항상 그들을 믿었으며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들이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았으며 무신론자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유대인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먼저 잉글랜드 성공회에 보냈는데 나는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법도 배웠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은 믿음이 진정한 기독교인 것을 기억하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삶이 왜 있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나 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학교는 나에게 좋은 종교적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진심이었다. 나는 다른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종교적인 주제를 비웃는 어른이 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슬람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이슬람을 종교라고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슬람과 이슬람 역사에 대해 조사했으며 몇 군데의 무슬림권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또 1972년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슬림이 되라는 추천을 했던 곳인 파키스탄으로 갔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의 조언을 했는데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무슬림이었다. 나는 이슬람이 서양인을 위한 종교가 아닌 동양인에게만 알맞는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수피즘은 정말 아름답고 시적이었으나 나에게 호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동양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캠브리지에서 불교에 대한 독서를 많이 했으며 명상 과정에도 잠시 동안 참석한 적이 있었다. 서양인에게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상은 올바르게 하는 경우에만 마음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무슬림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디크르(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는 명상과는 다르다. 디크르할 때는 쉽게 집중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집중하기가 이슬람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

나는 힌두교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일단 한동안 런던에 살던 인도 구루들을 따랐다. 사실 나는 불교와 힌두교 두 종교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그것들은 나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인간에게 만족스러운 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훌륭한 길이다. 이슬람은 인간에게, 인생이 어떻게 지속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밥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앉는지와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친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이슬람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매우 물질만능주의적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이고 평온하게 사는 것을 원하였다. 나조차 내가 얼마나 물질만능주의적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사실 내가 물질만능주의자인 것은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이들을 나의 위로를 위하여 쓰고 있었다. 그것도 일종의 물질만능주의이었다.

1974년에 나는 런던에서 공동체처럼 살고 있는 영국계 미국인 무슬림들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을 이슬람의 수피즘 믿음을 수용한 “하비비야 그룹” 이라고 소개한다. 그때까지 나는 그냥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때때로 일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곤 하였다. “Rock and Roll” 을 듣고 담배와 다른 것들을 사용하곤 하였다. 그리고 가끔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했는데도 그 새로운 무슬림들과 만난 후 갈 수 있는 길은 따로 없었다 이것은 갑자기 나 자신을 찾게 된 길이었다. 결국 나는 한 발짝 내딛고 온 마음으로 믿었다. 그 후 2-3개월 후 26살이었을 때 무슬림이 되었다.

무슬림이 된 그 날과 그 날의 느낌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한다. 나는 내 자신에게 “나는 오늘 밤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만약 간다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였다.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이 감정을 느꼈고 자신을 멈추지 못 하였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고 특별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성지순례로 가는 감정과 똑같았다. 이런 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날 밤 마음 속의 한 소리가 나에게 “너는 정말 나쁜 짓을 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해야 되고 또 다른 것들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두고보자.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지금 더 강해질 거야” 그것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물에 뛰어든다는 것” 과 같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본인이 뛰어들고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을 이상 수면에 올라 올 수 있을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무슬림이 된 후 하나님께, 이전에 무책임하게 살았던 삶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람을 통하여 참된 길을 보여주셨다고 믿고 있다.

이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적어도 무엇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슬람이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 무슬림이 된 하루 후에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고 "이사"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전의 삶을 절대로 갈망하지 않고 심지어 담배까지 끊었다. 의학적 이유와 아버지가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3년 후, 나는 알제리 여성과 결혼했고 현재 열 살과 여덟 살의 딸 두 명 있다. 우리는 그들을 주말에 꾸란 학원으로 보낸다.

사실 나는 "종교를 바꾸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그것은 우리가 온 곳과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괜찮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 왔고 다시 그분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수피즘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 나는 모두가 이슬람 수피즘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두가 자신의 자아의 노예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이유이다. 자기 통제 능력이나 자기 지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슬람과 실제 수피즘이 가르치는 것이다. 수피즘은 우리에게 욕망을 통제하는 법과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들이 내게 와서 그것에 대해 물었으면 훨씬 좋겠다. 나는 몇 명의 사람이 나의 안내를 통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에 매우 기쁘다.

... “나는 기독교 선교사였다” ...

푸아트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질문은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주변 사람들의 첫 반응이자 첫 질문이었다. 솔직하자면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로 개종할 사람들 중 마지막 사람은 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목사(성직자)였다.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엄격한 가치들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나를 가리킬 정도였다.

나는 뛰어난 사제 학교를 마치고 얼마 후, 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에게 이슬람이 여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의 긍정적인 대답은 나를 놀랍게 하였고 나는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녀는 나의 질문들에 보다 좋은 답들을 찾을 수 있는 이슬람 센터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슬람은 우리에게 사악하고 사탄의 종교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의 사악한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엄격한 교육을 받은 후에 그들의 진지한 접근을 보고 매우 놀랐다. 진심을 보고?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런

협박, 권태감, 심리적 압력이나 영향 없이 오직 사실과 본질만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나에게 책 몇 권을 주었으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들을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날 밤 나는 그들이 준 책 모두를 다 읽었다. 나는 인생 처음으로 한 무슬림에 의하여 쓰여진 이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가 읽거나 읽도록 지시받은 모든 책은 기독교인들이 쓴 책들이었다. 그 다음날, 나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3시간 동안 질문을 하였다. 이는 무슬림이 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 이루어졌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나는 이슬람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알라(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헌신, 용서의 희망, 평화와 영생의 약속이 있었을 뿐이였다.

당연히 나의 첫 질문은 알라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다.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는 어떤 신이였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은 무슬림들의 알라가 하나님과 다르고 가짜의 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알라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 교회의 첫 3 세기에 무슬림의 믿음에서와 같이 예수가 선지자이자 멘토라고 가르친 주교들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비잔틴 황제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기독교인이 된 직후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 비잔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바빌론 시대의 이교를 소개하였다. 나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서의 어느 버전이나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내가 물어본 중요한 질문들 중 다른 하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한 것이었다. 무함마드는 누구였을까?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에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기도드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신이 아니였으며 그를 섬기는 것도 금지된 것이었다. 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그분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또 이브라함을 위하여도 똑같은 것을 바란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이자 마지막 사도(메신저)였다. 사실 그분 후 14세기 동안 아무 예언자도 세상에 오지 않았다. 모세와 예수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것과 달리 예언자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온 인류에게 보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메세지는 이전에 알라(하나님)가 보내신 메시지들과 똑같다. "실로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꾸란, 14:22)

예배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예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알고 싶어졌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의 이 면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무슬림들이 안에 신이 있는 카아바의 가짜 신 센터를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나는 이 숭배 방법이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놀랐다.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하는 말들은 찬양과 열정으로 가득하였다. 예배하는 사람의 청결조차도 알라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그 주말에 나는 8년간의 신학 연구의 결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슬람의 정당성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마음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슬람을 받아들이지는 못 하였다. 나는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이슬람 센터에서 강의들을 듣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조사하고 심문하기로 했었다. 사람이 종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 잃을 구원과 평화가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잃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매일 나를 놀랍게 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가르친 이슬람과는 완전 달랐다. 석사 학위를 할 때 유능하고 존경받는 기독교 강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그 사람과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진심으로 믿는 것이었으나 틀린 것이었다.

두 달 후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하여 한번 더 기도한 후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먼저 앉고 알라의 이름을 처음으로 발음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요 당신은 유일하고 진정한 신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평화의 빛을 느꼈고 그 이후로 이슬람을 받아 들인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순식간에 또는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 때 서로 다른 종교의 두 학교에서 일해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 하고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으며 자녀들도 나를 오해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나라에서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나를 설 수 있게 한 나의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무슬림임에 감사하고 알라를 찬양하고 무슬림으로 살 것이고 무슬림으로 죽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유수프 알리

한 무슬림이 천주교회(카탈릭교회)에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계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는 좌석과 스테인드글라스를 그리고 예수의 초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일요일 예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림 아래에서 신부의 설교를 듣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일부 오래된 교회들에서는 예수의 초상화에 더하여 마리아의 초상화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마리아와 예수를 찬양하고 간청하는 노래와 기도가 낭송된다. 그것은 내가 자란 세상이다.

나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에게 이슬람으로 향한 이유를 묻는다면 나의 과거로 돌아가면서 대답할 것이다. 나는 종교적인 캐나다인 가정의 아이였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상태가 좋았다. 1970년대 중반에 나는 10살쯤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처럼 읽었다. 즉 그것을 읽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을 찾지는 못 했으나 칭찬을 받고 감사의 말들을 듣는 것에 행복했었다. 이것은 거의 1년 동안 이와 같이 계속하였다.

그 후 나는 지루해지고 나의 순수한 믿음을 잃기 시작하였다. 성경을 옷장에 놓고 그것을 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남겨두었다. 나는 성경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무슬림이 되어서야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 배웠던 유일한 것은 신의 존재였을 뿐이었다. 읽었던 신성한 책들이나 선생님들에게서 올바른 종교의 이해를 가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담론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정확히 무엇을 믿었는지 몰랐다. 확신한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받아들인 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은 전에 이해하지 못 했으나 나중에 이슬람과 함께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를 이 종교로 인도하였다.

무슬림과의 첫 만남은 한 무역 협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성실함과 환대가 나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온 마음으로 "알라"를 부르는 것과 "인샬라(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와 "알함두릴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은 나의 관심을 이끌었다. 그 말들을 들을 때까지 이 정도로 믿음이 강하고 진심인 신앙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친절함, 관대함과 꾸밈 없는 열의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무슬림은 주변에 비무슬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라는 명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슬람이 매력적인 이유와 내가 이슬람에 매혹된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나는 꾸란과 이슬람에 대해 오랫 동안 조사했는데 무슬림 친구들 특히 기독교와 유대인 친구들의 어떠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일정한 시간 후 이슬람에 대한 나의 지식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슬람은 1톤짜리 자석처럼 나를 단계적으로 끌어 당기고 있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하루 종일 알라에 대한 생각만 하였다. 이슬람은 나의 마음과 정신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았을 때도 이클라쓰 장을 비롯한 어떤 수라(꾸란 장)들을 배우고 그것들로 예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존재와 전심으로 온전히 사로 잡혀 우주의 주인 앞에서 엎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후 나는 꾸란을 조사할 목적으로 휴가 때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나흘 후에, 갔던 외국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한 달 동안 몸져누웠으며 비정상적으로 살을 빼기 시작했었다. 하나님께, 그분의 길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시기를 간청하였다.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았으나 이슬람으로 진지한 변환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어중간한 상태로 두지 않고 배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이 병이 신성하고 관대하신 그분으로부터의 모닝콜이라고 믿었다. 이는 나에게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에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에게 내일이 올지를 알 수 없다. 병이 나은 2주일 후에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제 무슬림이었다. 알함두릴라, 죽기 전에 칼리마 알 샤하다(신앙 고백)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알라는 무한하게 자비로우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꾸고 죄가 정화될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슬람은 당신의 이탈적인 행동을 바꾸고 영혼의 고통을 달래주는 약과 같다. 이슬람은 진리의 종교이며, 꾸란은 인생 전체를 위한 가이드다. 꾸란은 나의 모든 질문들에 답하며 나의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이슬람교는 예언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예수와 무함마드에 의해 인도된 신성한 길이다.

... "이해심이 있다"라는 단어의 중요성...

아이샤

나는 Cardiff, Wales(웨일즈 카디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기독교를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교회에도 가끔만 다니곤 했었다. 아버지는 성직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주 교회에 갔었다. 나도 3살부터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곤 했었다. 그러나 특히 청년기에는 성직자였던 전 남편을 만날 때까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 결혼하고 30년쯤 후에 남편은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많이 냈다. 남편의 오랜 친구와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남편이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4개월 후에 나도 무슬림이 되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심각한 억압에 직면하였다. 친구들의 대부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었다. 남편이 무슬림이 된 후 나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나 한 무슬림의 아내라서 교회에서 환영받지는 못 하였다.

그 시기동안 남편의 무슬림 친구들은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들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도 무슬림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고 남편의 친구들 중 한 커플의 11살인 딸이 나에게 이슬람에 대한 책 한

권을 줬으며 “무슬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것이 기억난다. 우리 친구들 중 한 무슬림 여자가 나를 이슬람 성원으로 데려가고 거기에 있는 다른 무슬림 여성들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거기에서 아무 불평이 없었고 그들의 그룹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에 대해 더 친하게 느꼈다. 그러나 나를 무슬림으로 만든 주된 것은 남편이 글로스터(영국)에서 사귀었던 무슬림 친구들이었다. 그 친구들 중 한 사람의 아내는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한 무슬림이 어떠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한 시간동안 비슷한 내용에 대해 말을 하였다. 그녀가 한 말들이 나를 이슬람으로 향하게 만들었으며 이 길이 맞는 길인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이것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남편과의 대화와 토론도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항상 종교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는 늘 “너는 이미 무슬림이 될 의향이 있어.” 라고 하곤 했었다. 1989년 3월 달에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남편은 절대로 내가 무슬림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완전히 나의 결정이었다.

무슬림이 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에 힘들겠지만 내가 많이 변했고 완전히 달라졌고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심이 많아졌으며 마음의 평화를 드디어 찾았다. 나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으며 이 상황은 말로 설명이 힘든 것이다. 의무예배를 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어 매일 빠짐없이 다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성원에 갈 수는 없지만 버밍엄에 있는 성원들에 가고 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이 성원 방문들에는 많은 친구가 생겼다. 그 성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해심도 많고 친하다. “이해심이 있다” 라는 표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나는 때로는 히잡을 쓰는데 직장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 나의 첫 라마단 때 동료들에게 라마단의 의의와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었는데 이제 그들도 익숙해졌다.

...나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었다...

수마야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창조자이신 알라를 찾고 그들이 이슬람의 진실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무슬림이 된지 칠 년이 되었다.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알라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1960년에 아일랜드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대학교에서 무슬림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이슬람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꾸란에 대해 가진 첫 정보는 꾸란이 유대인들의 성서에서 훔친 정보를 담고 있었고 이슬람교도들이 우상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으며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했었다. 기독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가장 좋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말, 특히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자들보다 좋을 수 가 있었던 걸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약해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의 개념 즉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 그리고 성령의 문제가 있었는데 , 이 세 명 모두가 한 분이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구름 위에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 떠오르곤 했었다. 예수에게 기도할 때는 긴 금발 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진 젊은 백인 남성을 떠오르곤 했으며 성령을 생각하면 하나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과 그와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힘들었다.

내가 이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예수를 포기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생각들에 빠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진실을 찾으려고 할 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내가 자세히 살펴 볼수록 예수의 신성과 희생과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사이의 중요한 유사함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토라가 일신교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리스 신화와도 연계시키면 이런 예수의 생각은 당연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고등학교 시절에도 기독교 사상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는 성경과 토라 사이의 모순이었다. 예를 들자면 십계명은 엄격한 법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그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기에 첫 번째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예수는 별도의 신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부라면 누가 누구를 희생한 것이었는가? 예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율법의 일신교의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진 것이었는가? 이것은 혼란스러워서 그냥 생각 안 하기로 하였다. 믿고 있는 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미래에 남편이 될 사람과 종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나에게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몇 번의 설명 시도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으며 “나는 성직자가 아니야.”라고 하였다. 그는 “종교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직자여야 되나?”라고 물어봤다. 상황은 바로 그가 말한 것과 같았으며 이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가끔 아픈 것이다. 그 후 나는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의 종교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것이었다. 하나의 신이 있었으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도자로 예언자들을 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도 우리를 인도하는 예언자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을 때 그에게 “하지만 나를 개종시키려고 시도하지마. 왜냐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라고 하였다. 그는 “아니. 난 그냥 내가 어떤 환경과 문화에서 왔는지 너에게 이해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에 진실을 보게 되었다. 알함두릴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알라는 나를 인도했고 나는 무슬림이 되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중 하나가 서점에서 찾은 꾸란의 영어 번역을 나에게 주었고 이 책은 유대인 출신인 이라크 사람에게 발간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꾸란을 이해하게 만들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무슬림 친구에게 해외 여행에서 돌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물어보고 싶은 모든 구절을 표시하였다. 물어볼 것이 정말 많았다. 그가 돌아온 후 손에 들고 있는 책과 함께 나의 질문들을 하였다. 그는 나를 위하여 좋은 꾸란 번역을 찾았다. 그것을 읽을 수록 처음에 읽은 전의 번역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릿속의 혼동도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창조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틀림없었고 모든 것의 원천은 그분이었다. 나는 이슬람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과 죄와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읽고

있었다. 나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외침이 있었다. 나는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꾸란에서 볼 수 있게 된 과학 지식에 많이 놀랐다. 또 그 당시에 미생물학 학위를 받고 있었다. 나는 두 가지를 믿었는데 하나는 이 책(꾸란)이 진실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슬람을 나의 종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없었다.

나는 무슬림이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알라 외에는 숭배 받을 만한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라는 것을 믿는 것임을 배웠다. 예수가 모세처럼 보내진 한 예언자인 것을 이해하였으며 잘못된 생각을 피하였다. 알라(하나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또 그분은 관대하시고 유일하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의 종이자 우리를 바른 길로 불러준 예언자였다. 알라(하나님)가 우리를 그 분이 가르치신 대로 인도하시길 기도한다.(아민)

...창조자께 복종하다...

레일라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3세대 아랍계 미국인이다. 할머니는 사우스 다코타에 살았던 개신교인이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의 왕자와 결혼하였다. 그 왕자는 아랍인 개신교인이었던 우리 할아버지였다. 어머니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신앙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의 어떤 의심과 싸우는 데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나는 1960-1970년 사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앙을 놀리고 이상하게 보는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래도 나는 개신교 관점에서의 정보를 받았었다. 그것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들을 받아주시는 창조자였으며 우리가 그분에게 중재자없이 도달 수 있는 것이었다.

12년 전에 이집트 출신인 친구와 이집트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머물렀을 때 미래의 남편이 될 라깁을 만났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를 카이로에서 만난 후 꾼 꿈의 영향으로도 그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꿈에서 황금 사자가 그의 날개로 나를 안아 주었고 강한 영성과 신성한 빛을 가진 종교의 심도를 향해 날고 있었다. 이 꿈을 라깁에게 말했을 때 그는 나에게 언젠가 내가 무슬림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무슬림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 만나고 십사 개월 후 그와 결혼하였다.

이제 벌써 십년째이고 자녀 두 명의 부모가 되었다. 결혼 초기에 이슬람의 매혹에 빠지고 있었고 궁금한 것들도 많았다. 나는 계속 읽고 있었고 특히 학술한문적인 연구를 읽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꾸란이 무함마드가 썼다는 것과 같은 몇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슬람과 페미느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자세히 해봤다. 라깁이 카이로에서 가져온 꾸란 번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꾸란을 손에 쥐고 있을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곤 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며 꾸란을 믿거나 부인했어야 하였다. 나는 2년 이상 단계적으로 이슬람으로 가까워졌다. 나는 무슬림이 될 때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와 장애물의 목록을 만들었다. 나는 또한 하나인 신을 믿었으므로 칼리마 알 샤다의 첫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의 종이자 메신저라고 말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한 사람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하였는데 내가 자란 환경을 고려할 때 천사를 믿는 것은 꽤 비이성적이다.

그 다음 달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과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나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 머리속에 있는 생각에 맞게 행동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느 날 교통 혼잡에서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가족내에서 일어날 갈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슬람을 선택하면 더 이상 내 주변인 및 가족과 완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반면에 나의 가족과 환경은 나에게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고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다.

그 다음 주에 느껴진 가장 큰 장애물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나는 약점을 알았으므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하였다. 나도 인간이었으며 잘못을 할 수 있었다. 내 영혼에서 번개가 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신을 믿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완벽하셨으며 나는 정직하게 그 분께 향해야 하였다. 그는 나의 무력감과 약함을 알고 있었다.

집에 갔는데 남편도 와 있었다. 그는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해 두 시간 쯤 그와 이야기했고, 예언자가 천사들과의 의사 소통에 관한 나의 모든 의구심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들이 옳다고 믿어도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결국, 나는 단지 하나의 설명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 말씀의 정확성이 내 마음에 의해 증명된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예언자 무하마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진다고 말하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였다. 그 후 나는 진리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온 마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나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나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했고, 내가 이미 이슬람을 선택해서 그가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성원에 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난 후에 무슬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이슬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알라에게 좋은 종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싶고 계속 발전하고 싶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게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 자신이 상당히 평화롭고 행복하다. 나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서 했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도하는 분은 알라일 때...

움 칼툼

나는 3년 전 쯤에 두 명절 사이(라마단 명절과 희생절 사이)에 라마단이 끝난 직후 무슬림이 되었다. 나의 영적 탐구는 삼십년 이상 지속되었다. 나는 1945년에 캐나다의 가톨릭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 종교에서 동의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었다. 이로 인해 나는 유대교 성서를 연구하고 토라와 유대교의 법을 배웠다. 남녀들이 따로 따로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유대교는 나에게 답이 아니었지만 종교적, 영적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나는 여성의 영성을 살펴 보았지만 무언가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여신을 믿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발명함으로써 많은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항상 일신교도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이 남성이라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성이라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종교 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연구를 거부하였다. 나는 신이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유대교 방식을 좋아하였다. 나는 종교 학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동의하였다. 이 때문에 나는 그들의 연구를 존중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나에게 호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다. 내 인생의 대부분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인, 기독교인과 무슬림이었지만 종교를 따르는지 아닌지는 내가 조직적인 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믿었다. 나는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종족의 평등을 강하게 믿는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종교나 가르침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라가 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었다.

내가 25살 때, 한 젊은이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는 출생으로는 이라크인이었고 종교로는 유대인이었으며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1970년대에 캐나다에 왔고 우리는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우리는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군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 몇 년 동안 나는 그 상처와 살았으나 알라는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나에게 대단한 선물을 주셨다.

나는 한 레바논 무슬림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무슬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고 같은 전쟁에서 동생을 잃었다고 말하였다. 오늘 날에도 우리는 그녀의 오빠가 내 남자 친구를 죽였는지 그 반대의 상황인지 알 수 없다. 눈물과 상처 후에 우리가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녀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마음이 치유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다치는 전쟁의 공포와 그것의 악을 보았다.

1995년 몬트리올에서 히잡을 착용한 여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직접 문서화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한 친구를 통하여 아주 친절한 이라크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히잡 착용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알라라는 신에 대한 깊은 헌신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실함과 마음의 친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이슬람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또 나에게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말하였다. 남녀는 평등했고, 모든 종족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했고, 예수는 신이 아닌 예언자였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한 모범이었다. 놀랍게도 이것들은 내가 이미 믿었던 것들이었다.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한 달 안에 그녀와 같은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것은 3년 전이었는데 지금 히잡을 착용하고 매우 행복하다. 이제 대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종교를 공부하고 있다. 전공은 이슬람이었으며 박사 학위를 받고 여성에 대한 법에 능하고 싶다. 나는 현재 여성과 7세기의 이슬람에 관한 책을 영어로 쓰는 중이다. 지금은 무슬림이 된 친구와 함께 공동 제작을 하고 전 세계의 여성들과 다양한 종교 교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슬람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또한 무슬림 여성들의 삶과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

알라가 나를 인도하고 이슬람을 통하여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 때문에 나도 나의 작품들로 이슬람의 모든 측면을 넓게 보여주고 이슬람의 다양성을 가진 통일성을 보려고 한다. 나의 무슬림 이름은 움 칼툼이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다. 나의 첫사랑은 전쟁에서 마음 아프게 무의미적으로 죽은 이라크 유대인 청년이었다. 나는 처음에 레바논에서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레바논 무슬림 여성이 내 마음의 수선을 시작하였다. 나의 마음은 또 다른 이라크 출신인 여성 덕분에 나아졌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무슬림이였고 나에게 이슬람을 알려주고 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알라가 상처 받은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길 바란다.

...마음의 눈이 떠 있으면...

말릭 무함마드

모든 찬양을 자비가 가장 많은 분이시고 심판의 날의 자비로운 주인이신 그리고 세계들의 주인신 알라께 드린다. 내가 들었던 것을 말하고 싶다: 천 킬로미터의 여행은 첫 걸음으로 시작하며, 이것은 내 여행의 첫 부분이다.

나의 이름은 말릭 무함마드 하산이다. 내가 이슬람으로 입교한지 얼마 안 되었다. 나는 197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종교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가족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 하였다. 나는 중산층의 비종교적인 기독교 가족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Alex Haley의 "Roots" 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슬람교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에 대해 조금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또한 나에게 알라를 소개한 책이었다. 나는 이슬람의 민족(The Nation of Islam(특히 말콤 X))에 관해 읽기 시작했고, 특히 그가 본인을 바친 The Nation of Islam을 떠난 후,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매료되었다. 말콤에 대해 읽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없는 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나를, 무슬림이라고 불리는 말콤과 헤일리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 괌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원래 해야할 공부보다 훨씬 부족했지만 이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읽는 것을 계속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완전히 맹인이며, 점자나 테이프로 된 이슬람에 관한 자료는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의 독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내가 얻게 된 자료가 한 무슬림이 쓴 것이 아니여서 이슬람의 어두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에 관한 기독교인이나 비무슬림이 쓴 대부분의 문헌은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핼리팩스에 무슬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무슬림이 되기 전까지는 지역 이슬람 협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1996년 5월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맹인 및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캠프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이력서를 보냈고, 하나님께 찬양하게도 나는 일을 얻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무엇인가가 계속 나에게 가면 좋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1996년 6월 30일에 나는 노바 스코샤에서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탔고 비무슬림으로 마지막 여행을 갔는데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 내가 1000마일의 여행이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두 번째 날이었다. 나는 일요일에 도착했고, 다음날 하나님의 신성한 힘으로 나를 아름다운 종교인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도와줄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나는 Rizwana라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것을 읽는다면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나에게 화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이름을 좋아했기 때문에 즉시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이름이 어떤 기원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아랍어라고 해서 그녀가 무슬림인지 묻자 “예”라는

대답을 받았다. 나는 약 10초만 걸렸던 이슬람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슬람에 관해 나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캠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야구 경기에 갔을 때 그녀와 나는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약 사흘이나 나흘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확실하지 않지만 7월 5일에 무슬림이 되었다. 내 인생은 그 이후로 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예전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보고 마침내 한 가족에 속한다고 느꼈다.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의 형제와 자매이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약 120억 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결국에 겸손해지고 내가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비무슬림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보라고 하고 싶다. 배우는 것이 좋지만, 언제 시험을 볼지 알 수 없으며, 기말고사 때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 알더라도 점수를 얻지 못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배우는 것은 좋지만 학점을 받으려면 수업에 꼭 참석해야 한다. 즉 신앙을 고백하고 알라께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보상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찾고 있는 것을 찾게 된다...

모니카

나는 에콰도르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종교적인 가족이 아니며 절대 그런 적도 없다. 내가 아는 한, 가족 중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가지 않았으며 어떤 종교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때문에 나를 가톨릭 고등학교로 보냈다. 나는 그 곳에서 종교를 공부했고 삶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 배웠다.

몇 년 후, 나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무슬림 학생들이 많았던 곳이었다. 처음에는 이슬람에 대해 많이 알지 못 하였다. 때때로 나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까지 그런 식의 예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숭배하는 모습이 매우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다.

이것이 이슬람이 나에게 미친 첫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실제로,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기 전까지 이 종교에 대해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천주교는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다음 성원에서 일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하였다. 결국 그들은 성원에서 열린 수업에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자매에게 나를 인도하였다.

나는 이 수업에 참여했고 몇 주 후에 이슬람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천주교와 비교할 때 이슬람은 매우 단순한 종교였다.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완벽한 종교였다. 이슬람에서 모순되는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가 두 종교의 차이점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란과 하디스의 지도로 모든 것은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천주교를 믿었던 시절에는, 그 종교의 구조나 이 종교에서 나의 정체성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다. 이슬람에서 창조주께서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신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의 틀 안에서 현실과 진실을 볼 때 놀라워 하지 않는다.

사실은 무슬림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선택을 위하여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도 교류하는데 나는 그 종교들이 말한 것을 모두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무슬림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아마도 그 어려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이 타인들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슬림이 우리 종교를 전파한다는 이름으로 외부 세계에 더 개방적이고 책임을 지길 바란다. 때때로 나는 가톨릭과 무슬림 친구들의 그룹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낀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무슬림으로 태어난 형제와 자매들보다 이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슬람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한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게 전부다. 나는 아무것도 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이야기한 것 같다. 사실은 할 말이 더 많은데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길 것이다.

...내 얼굴에 흠집이 있었다...

사피야

나는 1992년에 아주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천사 같은 아이였고, 나에게 한 은혜 같았다. 같은 해 11월에 나는 5개월 된 아기 티나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잃고 말았다. 나는 슬프고 화가났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아기를 나에게서 데려가서 아프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녀를 언젠가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나는 아기를 만나기 위하여 참된 종교를 찾기 위하여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기독교에 따라 자란 미국 가정의 딸로서, 의심없이 배우고 받아 들인 모든 것을 재고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대답이 필요하였다. 2년 동안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반복하였다. "주님은 제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겠지만 이것이 제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제가 그녀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도 전에 제 아기를 데려 갔고, 심지어 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한 맞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를 그 길로 인도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길들이 기독교라고 믿지 않으며 그것이 옳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종교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딸을 잘 돌 봐주시고 어머니가

그녀를 사랑하고 많이 그리워한다고 전해주세요.” 기도를 마칠 때마다 눈물이 났다.

나는 많은 종교에 대해 연구해봤지만 그것들 중 하나라도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 버리고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하였다. 나중에 나는 같은 술집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되었고 그녀는 그녀의 “큰 계획”에 대해 말하였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를 대신하여 수출입을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갈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떠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필요한 금액을 주고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나는 단지 그녀에게 언제 가면 되는지 물었다.

비행기에 탔을 때 짐 두 개, 가방 하나와 모르는 곳으로 가는 불안이 있었다. 나는 매우 흥분하였다. 라마단 중간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였다. 다들 친절했으나 나는 항상 회의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도둑질을 할까봐 걱정했었다. 이 생각은 나의 머리속을 바쁘게 하고 나는 그 생각들을 벗어날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에는 아직 친구가 별로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택시 기사에게 모두가 왜 그렇게 평화로운 기분으로 돌아 다니는지를 물었는데 그는 “지금 라마단 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선행에 대해 다른 달에 비해 두 배의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서 어떤 종교가 더 나은지에 대해 호텔 직원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토론은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종교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가 결코 믿지 않은 종교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너무 친절하였다. 내가 왜 그런지 물었을 때마다 그들은 “꾸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나 같은 미국인에게는 상당히 무의미한 대답이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내가 집에

늦게 도착했을 때 하는 유일한 말은 “왜냐하면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 이었다. 나는 이제 나를 채워줄 단단한 대답이 필요하였다. 말레이시아 친구들의 도움으로 꾸란과 이슬람에 관한 책들을 샀다. 나는 2주 동안 자신을 내 방에 잠겼다. 나는 오랫동안 외출하지 않으며 다른 책과 함께 꾸란을 읽었고 48시간 후,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내가 찾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문제는 어직 남아 있었다. 예수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슬람에 따라 옷을 입는 방식을 바꿔야 하였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에게 무슬림이 되었다고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들과 싸울 때 꿈을 꾸었다. 한 천사가 내 아기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내 아기 뒤에 악마가 있었다. 밤새 악몽으로 고생하였다. 악귀들은 나에게 종교를 바꾸지 말고 원래 가던 길을 가라고 말했고, 천사는 나에게 무슬림이 되라고 말하였다. 악마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밤에 나는 다시 악마와 싸워 그는 내 얼굴을 긁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여자의 얼굴을 긁을 수 있어?” 라고 한 것같은데 나는 그를 찼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제 무슬림이 될 것이야. 오늘 개종할 것이야.” 라고 외치면서 일어났다. 나는 온 몸에 갑자기 평화가 퍼졌다고 느꼈다. 이전에 이정도로 안심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곧장 직원 사무살에 가서 이슬람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얼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물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에 흠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더니 그들은 이것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나를 새로 개종한 무슬림들을 위하여 설립된 페르킴에 있는 기구로 데려갔다. 1994년 6월 15일에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다시는 돌아 보지 않았다.

...선생님, 이곳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존

나는 1968년에 애리조나에서 태어났다. 나는 천주교인으로 자랐다.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였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을 때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천주교를 선택하였다. 부모님은 교회 합창단에 참여하였을 때 결혼하였다. 우리 가족은 상당히 종교적이었다. 우리는 의식을 위하여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었고 월요일 오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가톨릭 과학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슬람과의 첫 만남은 9학년 때 우리 반의 사회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반 친구 중 한 명에게 "가톨릭 교회를 포기하면 무슬림이 되고 싶다" 고 말하였다.

나이를 먹으면서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도 천문학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과학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되돌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과학으로 인해 약해졌음을 기억한다. 나는 오늘 이 약점으로 부터 나를 구해주신 알라를 찬양한다. 그때 나는 때때로 자신을 무신론자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나의 관심은 항상 계속되었다. 나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는 선불교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또한 다른 기독교 종파들을 따르는 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으며 그 종파를 따르는 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기독교 교파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1985년에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 등록하였다. 나는 몇몇 사회 대해 공부해야 한 당시 "이슬람에서의 사회 구조"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역사와 종교 교수들의 지도로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주제는 나에게 매우 흥미로워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성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91년에 나는 CIA와 인터뷰를 하여 행정직을 신청하였다. 모든 것이 논문 주제까지는 괜찮았지만 주제가 "이슬람에서의 사회 구조"라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 강하게 반응했고 나는 고용되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CIA에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N. J. Dawood가 번역한 포켓 꾸란 번역본을 가졌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읽었다. 그 당시 "이슬람에서의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이후로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나는 델레나라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전화로 이야기하곤 했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결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피자를 먹고 영화를 보기 위하여 집에 초대하였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히지리 달력(이슬람 달력)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몇 년 전에 무슬림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나머지 밤 동안 이슬람에 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 다음 Muhammad Marmaduke Pickthall의 꾸란 번역을 받았다. 이 번역판에서 알라에 대한 설명은 내 마음에서 특별한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꾸란을 더 많이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 무슬림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마음에 과학적 의심이 있었다. 나는 꾸란이 실제로 알라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였다.

몇 달 후 Pickthall의 번역과 비교하기 위하여 Ahmed Ali의 꾸란 번역을 샀다. 알 슈라 장 (42장)에서 꿀벌에 관한 부분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알라가 그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과학이 많은 해가 지나가고 나서 발견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나는 꾸란이 알라에 의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으면 세 개의 꾸란 번역을 가지고 있기에 사후에서 무슬림으로 여겨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성원에 가서 신앙고백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곳으로 떠나려 했을 때, 거의 하였다고 생각하는 신앙고백을 말하는 것에 대해 겁쟁이 같은 심각한 긴장감을 느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원에 갔는데, 그곳에는 직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흑인인 "하킴" 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나는 여전히 무슬림이 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킴에게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그의 대답을 잊어버릴 수 없다. "이곳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였다. "물론, 알고 있죠."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였다. 그는 나에게 신앙고백을 하고 싶어하는지 물었는데 나는 "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하킴에게 의미를 몰랐던 아랍어 단어들을 말하였다.

나는 힘든 개종 과정을 거쳤으며 길고 어려운 길의 짐을 지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델레나와 하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내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위대한 창조주께 기도한다.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

도로시

나는 1950년에 찬주교 부모의 마지막 자녀로서 런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종교적이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매우 종교적이었다. 부모님은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다. 우리 가족에서 종교적 관습 모두가 실천되고 있었으며 우리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곤 했었다. 나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양육되었다. 어쩌면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처한 상황은 나에게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때때로 논쟁이 일어나긴 했었다.

런던에서 카쉬미르 출신인 현재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 이슬람에 관해 기억하는 것은 이슬람이 사람들에 의해 놀림을 당한 종교라는 것이었다. 이슬람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남편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세균학 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동안 그가 무슬림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말하였고 2년 후,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둘 중에 어느도 종교적인 생활이 없었던 이유로 종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남편은 나에게 무슬림이 되고 싶은지를 묻지 않았다. 그가 공부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결혼하였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우리는 여전히 종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난 후에 종교에 관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남편은 금요일 합동 예배에 가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기도하러 가고 있으며 라마단 달에도 단식한다. 우리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마침내 자녀들을 남편의 종교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무슬림이 아니었으나 나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성원으로 데려 가기 시작하였는데 신앙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라마단에서 며칠 단식하고 꾸란의 몇 구절을 배웠다. 나는 그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였고, 나는 이제 자신을 무슬림으로 보고 있었다.

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기독교를 볼 때 그것을 단지 종교로 보지만 이슬람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 생활 방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다른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편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무슬림이라면 한계가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슬람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은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 진심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나를 만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따라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의 삶을 전 삶과 비교할 때, 이전의 삶에 목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부모님은 무슬림과의 결혼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나도 무슬림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이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무슬림이 아닌 친구들에게서도 어떠한 친밀감을 보지 못 하였다.

무슬림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지만 물론 무슬림과 결혼하게 된 것에도 기쁘다. 무슬림 남성의 좋은 점 중 첫째는 그들의 신뢰이다. 그들은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

케이트

나는 1957년에 잉글랜드 성공회 출신인 가족의 두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나는 종교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슬람으로 입교하기 전에 종교에 대해 별로 신경 쓴 적이 없었다. 종교는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나는 히피인으로서 살고 기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불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으나 불교도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런던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나는 이슬람 생활 양식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알제리 무슬림과 결혼하였다. 비록 아랍어과 학생이었는데도 아기를 낳았을 때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다. 우리 아랍어 교사는 때때로 이슬람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연설을 하곤 했었다.

결혼 후 약 2년이 지난 1981년 초에, 나는 한 달 머물려고 알제리에 가서 남편의 가족을 방문하였다. 영국으로 돌아온지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 23살에 무슬림이 되었다. 내가 겪은 경험은 이제 의미있게 되었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은 하루가 아니라 오랜

과정의 결과였다. 알제리에서 보낸 시간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한 결정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문화에 감정적으로 매료되었지만 마음과 논리의 범위 안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종교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유대는 약화되지 않았다. 나는 히잡을 착용하지만 너무 꽉 끼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받는다.

나는 돼지 고기와 알코올 섭취를 그만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은 인생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슬람은 그런 종교이다. 주말에 아이들을 성원으로 보내 종교의 기본 규칙을 진지하게 따르도록 한다.

나는 이전의 삶이 나쁜 방향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매우 기쁘다.

...나는 60 살에 무슬림이 되기로 하였다...

브라이언

1924년에 런던에서 중산층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종교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침례교[1]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신을 두려워하였다. 나는 열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와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국립학교에 갔고 기숙 학교에서 매일 아침과 매주 일요일에 두 번 설교를 들곤 하였다. 즉 나는 훌륭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후, 나는 종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참석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이었으나 무슬림이 되기 전에도 마약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 나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대해 읽고 있었으며 또한 힌두교에 관하여도 조금 알고 있었다. 힌두교는 나에게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신비를 상기시키기는 하였지만 이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에 대해 배우는

1 침례 교회 : 가장 큰 개신교 교회 중 하나. 그들은 의식적인 신자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을 변호한다. 청소년기에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어린이 침례는 불필요하다.

데 관심이 없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읽고 있었으나 이슬람에 대해 읽는 시간 동안 본 것은 꽤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슬람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나는 이슬람으로 깊이 뛰어 들었고 마침내 성원에 가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아주 작은 성원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관해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영어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나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성원으로 가라고 조언하였다. 나는 그 성원에 가서 나를 많이 도와준 남아프리카 무슬림들을 만나게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슬람 성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천천히 배워갔다. 그런 다음 런던의 센트럴 성원에 가라는 조언을 받았다. 사실 그곳에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그곳에 가보니 많은 영어를 쓰는 무슬림들을 만났다. 그리고 육십 세 때 무슬림이 되기로 하였다. 이 과정은 몇 달이나 걸렸으며 그 후로는 되돌아 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나는 종교에 더 푹 빠져 이슬람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이전 삶은 잘못된 방향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라가 보여주는 길은 진리이며 우리가 행하거나 경험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이슬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하기에 좋은 정의가 아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발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나의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올라갔다.” 고 말한다. 여전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요점이 있었으나 그것들 모두는 꾸란의 가르침으로 명확해진다. 비록 이슬람의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다. 나는 이전에 믿었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 잘못 인도됐으나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예수의 가르침. 그러나 그것들은 나의 오래된 지식으로만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삼위일체” 개념에는 이미 관심이 그다지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무슬림의 눈에 있는 명예롭고 거룩한 지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찬송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하나님과 같았다. 예수가 신이 아니거나 그분의 일부가 아니라 알라의 종이자 예언자였다는 것은 알기가 매우 쉬웠다. 내가 꾸란의 번역을 처음 읽었을 때 매우 철학적이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세한 꾸란 설명(tafsir)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했으며 꾸란의 아름다움에 사로 잡혔다.

이슬람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현재 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옛 이름을 사용해야 하였다. 또한, 내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과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영어 이름은 이슬람을 외국 종교가 아닌 (예를 들어 아랍인들을 위한 종교) 종교로 보일 수 있게 한다. 나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과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슬림이 되도록 안내했을 것이다.

...이슬람이 나를 상쾌하게 한다...

글로리아

나는 1958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노동 계급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예배하거나 교회에 다니지는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인생이 끝날 무렵에 더 유연해졌지만 무신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항상 아주 좋았지만 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 없었다. 우리 집에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왜 우리가 가지 않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녀가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학교를 시작했을 때 종교 교육을 받을 기회는 있었지만 가족의 선택으로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슬람으로 입교하기 전에 나는 도덕성 측면에서 지금과 거의 동일했지만 지금은 더 평화롭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었으나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서양인들처럼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종교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사회주의를 변호하였다. 나는 항상 사람들과 잘 지내며 이것이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나는 휴가를 위하여 쿠바에 가서 1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있었으며 또 교회나 다른 예배 장소가 없었으며 빠진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신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면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 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바에서 돌아 왔을 때 (잠깐 종교에 대해 잠재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불교에 대해 읽기 시작하였다. 불교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불교는 당시의 추세였던 것에 있다. 그런 다음 나는 기독교에 대해 읽었지만 그 종교에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슬람 관련 책을 파는 서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무슬림 친구들에게 책을 요청했고 이슬람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을 쓰고 번역하는 무슬림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매우 행복한 무슬림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슬람을 배울 수 있는 런던의 작은 성원에서 학원을 찾았다. 그 학원에 5-6개월 동안 참석하였다.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여 이런 이유로 이 학원에 참석한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나와 다른 이유로 온 여자는 한 명만 있었는데 그녀는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다. 남편의 영향으로 온 다른 여성들의 대부분은 이미 무슬림이 된 것이었다. 나는 이슬람을 배우는 데 약 6 개월이 걸렸고 그 후에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와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원의 교사에게 가서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하였으며 신앙고백을 하였다. 나이는 30살이었다. 그런 다음 즉시 숭배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에 맞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는 습관으로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으므로 나도 먹지 않았다. 나는 또한 술집에도 오래전부터 가지 않고 있었고 술도 가끔만 마시곤 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영국인 무슬림이고 영국 사람들도 무슬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나는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두 권의 책을 가졌다. 내 친구가 나를 Fadlallah Haeri에게 소개하였다. 나는 그의 그룹에서 여러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예배할 때는 알라를 만나는 느낌이 든다. 예배는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평화를 가져다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내가 사는 사회를 고려하면 내가 대단한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에 따르면 나는 죄 많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나를 힘내게 한다.

...나는 무슬림의 가족 구조를 좋아하였다...

폴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지금 런던 어딘가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로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어떤 종교를 위하여서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신론자인 것 같았다. 사실 나는 그녀를 어머니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중산층 출신이지만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영국과 영국 사회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TV에 무의미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유일한 것은 만화였다. 나는 어린 시절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다르게 보냈다. 나는 매우 엄격한 가톨릭 전통과 가장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보았고 영국 귀족의 한 구성원도 되었으며 어머니가 어두운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마약 파티에도 참여하였다. 어머니는 내가 열세 살 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어떤 생각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문맹이었으며 내 이름까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학교를 시작했을 때 종교에 관해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사립 학교에

갔다. 그것은 자본주의자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자와 중산층에게도 호소하는 학교였다.

나는 무슬림이 되기 전에 종교적 가르침을 받거나 예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또한 기독교인들과도 많은 상호 작용이 없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가족 모두는 성경이 다시 쓰여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성경을 믿은 적이 없다.

나는 어떤 약물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술은 특정 시간에만 마시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열 여덟 살 때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Imperial College)에서 대학교를 시작하였다. 우리 반의 무슬림 친구들 덕분에 이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슬람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 대화 중에 언급되기는 했었다. 어느 날 나는 무슬림이 되기로 하였다. 정말로 결정한 것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몰라서 아직 진짜 무슬림이 아니었다. 나는 무슬림의 가족 구조를 좋아하였다.우리 반 남녀 무슬림 친구들 모두에게서 이러한 가족의 특징들을 관찰하였다. 여자는 여자임에 기뻤다. 그들은 우리 문화의 여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남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남편이 일하러 갔을 때 집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좋으며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매일 밤 코가 삐뚤어지게 술에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도덕적 가치는 꽤 높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다. 여자들은 누구와도 경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내가 아는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모두 훌륭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슬림 여성은 여자이기에 기쁘고 무슬림 남성은 남자이기에 기쁘다. 둘 다 그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성취하는데 나는 특히 이 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아직 이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아는 것은 그런 가족 분위기에 있고 싶었다는 나의 마음이었다.

무슬림이 되기로 한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을 배우는 과정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슬람은 날마다 점점 더 내 삶에 들어간다. 그래서 배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배운 것이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날에 이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슬림이 되었을 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 하였다. 그들 중 한두 명만이 내가 세뇌 당했기 때문에 무슬림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이집트에 머물렀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미래의 아내는 히잡을 착용해야 하며 그녀는 히잡의 필요성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 그녀는 믿음이 강한 무슬림이어야 하고 동시에 조용하고 침착해야 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가치라면 그녀는 이러한 가치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당신은 당신뿐만 아니다...

이브라힘

나는 1956 년에 영국의 타인머스(Tynemouth)에서 태어났다. 나는 종교 교육을 타인머스의 감리교회[1] 에서 받았다. 부모님은 별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중산층 가정이었고 우리 집에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마저 매우 평범하게 축하하곤 하였다. 선물을 사곤 하였는데 그것은 다였다. 예수의 부활[2]로 축하되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휴일일 뿐이었으며 종교적인 의미는 없었다. 나는 때때로 교회의 일요일 학원에 참여하곤 하였다. 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의무적이었지만 나는 종교에 대해 배운 것은 매우 적었다. 우리 선생님은 기독교의 기본에 대해 몇 가지만 가르쳐 주었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에 유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운 적은 없지만 때로 술을 마시곤 하였다. 나는 대부분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종교적인 것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나는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였다.

1 감리교회 : 18세기에 생겨나고 존 웨슬리의(John Wesley) 가르침에 비추어 옥스포드에서 발전한 교회. 체계적인 영적 삶을 통하여 종교적 깨우침을 제공하는 교회.

2 부활: 기독교인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다음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하해지는 휴일.

나는 학청 시절이 끝날 때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무슬림 학생 커플을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들이 숭배하거나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들은 나를 휴가 때 남아프리카에 초대하였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와서 성원이 어떤지 봐요.” 성원 안에서 남아프리카와 인도 사람들이 성원에서 나란히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남아프리카에서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고국으로 돌아 왔을 때 꾸란과 이슬람에 관한 책 몇 권을 샀다. 이 책들을 읽은 후 기독교 교회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이슬람이 여러 인종을 만나게 하는 능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약 2년 동안 그러한 책들을 읽었다. 이 시간동안 이 두 학생 이외의 다른 무슬림들을 만난 기억이 없다. 2년 후, 나는 런던의 킬번 (Kilburn) 지역에 있는 영국인 무슬림 한 명과 무슬림 학생 몇 명을 만난 무슬림 학생 협회에 연락을 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만났고 나는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때 스물 다섯 살이었다. 우리는 리젠트 파크 성원에 갔다. 그 날 금요일이었고 그곳에서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금요일 합동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런 다음 신앙고백을 하였다. 그 다음 날 나는 하루에 5번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모든 인생은 무슬림이 되기로 한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에 적응하려고 하면 이슬람은 당신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인식하는 것과 당신의 존재와 상관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당신은 당신 뿐만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종교를 바꾼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슬람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알라는 우리가 합리적 또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슬람에 사제직과 같은 것이 없어서 정말

좋다. 당신은 알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즉 알라와 그의 종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에 대해 읽음으로써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이슬람에는 기독교처럼 “삼위일체”의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의 신 개념은 나에게 매우 논리적으로 들렸다.

무슬림이 된 후에는 모두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합한 아내를 찾기 시작하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남아프리카 여자와 그녀의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한 명이 내 의도를 그녀에게 전했고 그녀도 받아들였다. 그는 무슬림이었으나 별로 종교적인 생활을 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예배를 하거나 단식하거나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그녀에게 히잡을 입으라고 요청했지만 내 노력은 허무하였다. 그런 다음 그녀가 그것을 입을 때마다 알라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랬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알라를 위하여 히잡을 착용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알라 덕분에 그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아버지는 내가 무슬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화가났으며 약 2년 동안 나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자주 보지 못 하였다. 동생의 집에서 그녀와 만나곤 했었다. 얼마 후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이 일은 우리를 다시 모았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서로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였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영성을 잃어 버렸고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렸다. 모두가 영적으로 아프며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말 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가치는 없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에도 반영된. 노인과 선생님에게 존중은 아예 없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슬람 생활 방식에 있다고 본다.

...나는 무슬림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

칼릴

나는 1951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나의 어머니는 감리교 종파의 존 웨슬리를 따르는 까다로운 신자였다. 아버지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봤지만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중산층 가정이었다. 나와 부모님과의 사이는 좋았다. 어머니는 나의 청년 초기까지 나를 교회로 데려가곤 했었다. 나는 친구들에 비하여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랐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나 결코 중독자는 된 적이 없다. 그 때는 1960년대 말이었고 내 나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슬람과의 첫 만남은 해외에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 나는 간호 학생이었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리비아와 이란에 가서 각 나라에서 1년을 보냈다. 그러나 무슬림들과의 첫 만남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나는 이슬람에 대한 진부한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십자군에서 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인으로서 이슬람에 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 다른 것은 이 종교의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무슬림이 될 것을 생각조차 안 하였다. 당시 나도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리비아에서 돌아온지 약 1년 후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결국 진단 결과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들은 내가 진단을 받기 전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간호사로서 쌓은 경험으로 6개월 동안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경험한 이 일들은 종교에 대해 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이미 종교를 알아보는 중이었으나 이 병은 나에게 서두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사후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였다. 나는 내 인생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독교인 간호사들과 일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매우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믿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것이며 내 자신과 모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예를 들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교회의 의식과 예배가 인위적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독교에는 깊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불교를 크게 존중했지만 불교의 창조의 논리는 나에게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리비아에 있었을 때 수단 친구들과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곤 했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슬람에 반대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태도와 샤리아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마도 나는 이미 잠재 의식에서 이슬람의 사실을 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적십자사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케냐에 갔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 하였다. 거기에는 무슬림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는 천주교도인 직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룹 리더이자 영양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 중 일부를 거부해야 하였다. 그들이 생존할 확률은 20% 였는데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만 시간을 내야 하였다. 끊임없이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짜증스럽고 우울하였다. 나이로비로 가는 여정에서 많은 책과 꾸란 번역본을 읽었다. 꾸란을 읽었을 때 내가 이미 무슬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읽은 책들에서 쓰여진 것들을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꾸란은 그 생각들의 판본이었고 그것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었다.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조언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꾸란을 읽었을 때, 나는 이미 영적으로 무슬림임을 것을 깨달았고 30살에 나이로비의 한 이슬람 학자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였다. 이것은 “예,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믿었던 것이어서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서구 사회의 방식에 대해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노인들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면 나는 이슬람 나라들에서 가족이 노인과 병든 사람들을 사회에 맡기는 대신 자기들이 돌보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것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규칙을 사회에 맞추기 위하여 바꿔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 영속성을 잃어버렸으며, 세속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사회는 세속적인 존재이며 기독교인들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그들이 변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이제 그들은 여자들이 사제가 되고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종교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규칙과 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방의 후기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환경 문제, 에이즈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삶의 질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불만을 느끼고 인생은 더 불안해진다. 나는 이란에 갔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아주 좋은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행복했고 삶에 더 만족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더 복잡하고 문제가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회를 보게 된다. 더 단순한 삶은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꾸란의 번역을 읽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 큰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서 산앙 고백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너무 강해서 마침내 신앙을 고백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이슬람이 참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 계속 배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이슬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슬림이 된 것이 맘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엄격한 방법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녀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무슬림이 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게 만들었다. 나의 오랜 친구들의 생활 방식은 매우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다. 심지어 그들 중 이슬람을 놀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만나는 것을 그만하였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쉬운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슬람을 만난 후에는 나를 위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회의 모든 부패와 죄를 경험하였다... 이제 나는 그것 중 어느 것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

자밀

나는 1951년에 일하는 가족의(노동자 계급 가정) 아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영국군의 병사였으며 영국 교회에 깊이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교회가 행한 군사 시위를 제외하고는 종교와 관련된 것을 행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몇 번 교회에 데려 갔지만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선일뿐이었다.

내가 열 살쯤 되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가 손댄 것들을 만지고 싶지 않을 만큼 그를 미워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나는 열 여섯 살 때 출가하였다. 그 당시에는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함조차도 머릿속에서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어린 소년이었다. 그러나 예의를 별로 모르는 것이었으며 종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사회가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 사회에서 맥주 10캔과 위스키 반 병을 마시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의하여 영웅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우리들은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다. 사회가 그렇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사회는 우리에게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운전을 빨리 하며, 훌륭한 전투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사회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60 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마약도 사용하고 있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한 달에 적어도 3~4명 여자와 자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남성으로 보지 않고, 당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다른 종교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는 무슬림이 되기 약 1년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논리적으로 신이 있고 신이 있으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 이래 유효한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다음 그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쪽을 택하든 당신은 결국에 이슬람을 만난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메신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 전에 세상에 온 예수조차도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에 오고 마지막 예언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를 계몽이라고 묘사한다. 이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이 기록한 성서 버전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시대에도 살지 않았다. 바나바는 예수의 친구 중 한 사람으로 예수의 조언을 썼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사상을 고려하면 왜 이 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지지 않는 것인지 이해된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까지 이 나라의 학교에서도 발언되지 않는다. 그는 역사적인 지도자 일뿐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으로 간주된다.

무슬림과의 첫 만남은 33살에 감옥에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 나는 2년 동안 그 곳에 있었고 무장 강도 사건으로 8 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나는 이 사건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읽었으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한 이맘이 내 룸메이트를 방문하러 왔다. 그는 내가 무슬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지금 한 말을 정확하게 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는 물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무슬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되면 많은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식, 하루에 5 번 예배 등등.”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 제가 이것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알라는 이 규칙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알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했고 알라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면 인생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다. 이슬람은 아이디어나 믿음이 아닌 지식을 바탕으로 말하는 믿음의 체계이다. 나는 믿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신자이다. 무엇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이론일 것이다. 믿음을 심문할 수 있으나 지식을 심문할 수 없다. 이슬람은 확실한 설명이다.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이 설명과 지식을 제공하신다.

나는 무슬림으로서 알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33년의 망상 후, 속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지금 매우 영리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합동 예배를 하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지 않고 예배를 하는 것을 더 많이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킬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는 내 삶을 보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나는 매우 잘못된 길에 있었고 아주 나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알라께서는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차이를 확실히 경험하였고 또 사회의 모든 부패와 죄를 경험하였다. 이제 나는 그것 중 어느 것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

...무슬림이 다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면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브루스

나는 1965년에 영국 머지 사이드 도시에서 태어났다. 나는 중산층 가정의 둘째 자녀였다. 아버지는 개신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감리교도였다. 우리 가족은 일요일에 나와 동생을 학교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다. 16살 때까지 간 주립 학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배웠다. 솔직히 말해서 종교 교육을 받았을 때 그다지 매료되지 않았다.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종파를 따르지만 나는 그들이, 자신이 믿는 종파의 차이점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종교적 감정이 가득하거나 종교와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없다.

열 네 살 때, 여동생도 회원이었던 Christian Youth Club(기독교청소년 협회)에 가입하였다. 나는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그러나 나는 그 말들을 연결하지 못 하였다. 토론 주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나는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 이야기들은 정말 신기하였다. 꾸며진 이야기들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도 내 인생을 이끌 정도는 아니었다.

7학년 때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고전 문명이라는 과목을 들었다. 이 과목은 메디나의 첫 무슬림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 심지어 나는 여동생에게 이슬람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한다. 너무 논리적이었지만 역사 수업일뿐이니까 듣고 넘어갔다. 종교 수업에서 이슬람의 이름을 한두 번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항상 편견에 따라 다루어졌다. 우리에게 무슬림의 신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지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항상 나에게 우스운 것처럼 들렸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나는 기독교 예배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종교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에 대한 나의 헌신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을 그만하였다. 약 한 달 후,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많아져서 나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평범한 삶과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꽤 좋았다. 나를 종교로 인도한 중요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유를 모르지만 갑자기 내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느꼈다. 나는 나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불교를 향했고 많은 불교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것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으나 이슬람에 대해 한 것처럼 깊은 연구는 아니었다. 불교는 새로운 형태의 힌두교이다. 불교의 규칙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종교에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하나도 없다. 도둑질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예의 규칙을 존중하고 관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제외하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참된 종교 같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불교에는 이슬람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힘은 없다. 이슬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1970년대 이슬람을 받아들인 유명한 팝스타 캣 스티븐스(Yusuf Islam)는 1985년에 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예술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를 받았다. 그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나도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1 + 1 = 2라고 가르쳤지만 기독교에서는 1 + 1 + 1 = 3이 아니라 1이라고 가르쳤고 이 가르침이 다른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다면 왜 종교에서는 논리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종교에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캣 스티븐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런 다음 나와 같은 과목을 들은 어떤 무슬림 부부들을 만났다. 나는 심지어 몇 달 동안 무슬림 여자와 데이트를 했고 그녀는 나를 이슬람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였다. 그 무슬림 친구들은 나에게 이슬람에 관한 책 몇 권을 주었다. 나는 영국 버밍엄 이슬람 전파 센터에서 Ahmed Deedat 의 소책자를 구입하였는데 소책자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였다. 이슬람이 과학과 관련이 있는지, 진화론을 믿는지, 무함마드가 실제로 예언자인지에 대해 무슬림 친구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모든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받았다. 나는 거의 매주 그 센터에 질문을 보냈고 모두의 답을 받았다. 몇 편지 후 이슬람은 나에게 더 개방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에게 꾸란을 보냈는데 나는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응답을 보냈다.

나는 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매일 이슬람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머니와 친구들은 내가 무슬림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 대한 나의 첫 연구는 1988년 9월에 이루어졌다. 나는 술을 마시는 것과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을 그만 두었다. 이슬람이 참된 길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얻었을 때, 나는 공식적으로 무슬림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생각없이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논리로 내린 결정이었다.

1989년 10월 29일에 리젠트 파크 성원에 갔다. 나는 그곳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했던

그룹에 합류하여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 때 스물 네 살이었다. 내가 무슬림이 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무슬림 친구들이 나와 악수를 하고 나를 안아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를 식사에 초대하였다. 그들 중 하나가 내 볼에 뽀뽀하였다. 나에게는 조금 놀라운 일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한 남자가 내 뺨을 뽀뽀한 것이었다. 나는 무슬림들 사이에 강한 유대가 있음을 깨달았다. 무슬림이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 라고 부르면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슬람에서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한 두 번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종교의 예배를 수행해야 하였다. 내 감정과 행동 후에 변경된 첫 번째 것은 내 생각이었다. 몇 주 후, 나는 자신을 무슬림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우리 가족은 충격을 받고 화를 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가 이슬람에 보여준 관심이 종교 수업에서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직접 대면하는 대신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그녀는 내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아서 전화를 하였다. 우리의 대화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결정을 존중하였으나 나에게 정치 운동이나 시위에 참석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친구를 만나는 대신 성원에 다니고 있었다. 친구들은 이 상황에 매우 놀랐다. 나는 그들을 무시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는 대신 성원에 초대하였다. 동료들은 내가 선택한 종교가 구식의 종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무슬림으로서 올바른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전에도 나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읽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예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배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데에 있다. 예배 시간을 놓치면 기분이 나빠진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햇빛이 있는데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리나

나는 무교인 아버지와 기독교 정통파를 따르는 어머니의 자녀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나는 공산주의의 모든 종교 금지에도 불구하고 마을 교회에서 비밀로 침례를 받았다. 나는 집에서 하나의 신의 믿음으로 자랐다. 나는 종교적 축제를 좋아했으며 예수가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하였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만을 꿈꾸고 있었으며 나의 대단한 학창 시절(초-중-고) 후 전국에서 최고의 대학교의 영어 비지니스과에 입학하였다.

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인생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답이 없는 질문들로 천천히 길을 잃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과 예수는 누구였는가? 인간과 세상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늘과 지옥, 또 영원은 무엇이였는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였는가?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고 마치 나를 끝없는 구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다. 붙잡을 빛이나 가지가 없었고 심지어 내 영혼의 이 비명을 듣는 귀도 없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어서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었다. 그들은 "너는 지금

청춘이고 성공적인 사람인데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일들을 그만 하고 자신을 이렇게 무리하지 마라." 라는 충고를 하였다. 그들은 내가 인생을 참을 수 없는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심리 작전에서 미친 것들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효과가 없었으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다. 그 후, 그 차갑고 위험한 생각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지친 날들과 잠들지 않는 밤으로 이 불행에 잡혀 5년을 살았다. 나는 계속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갔으며 한 심리학자에서 다른 심리학자를 찾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결론에도 도달 할 수 없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에게서 물려 받은 믿음이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길을 보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내 나는 최선의 해결책은 사는 나라를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석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한 후 오스트리아에 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나는 내 암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을 것일 줄 알았지만 그 암실은 오스르리아에서도 나를 따라 왔다. 이제 나는 어둠이 내 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태양의 빛에서까지 빛을 볼 수 없었다. 햇빛 아래에서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얼마나 이상할까?

나는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 이 누구냐 하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나라고 할 것이었다. 밖으로는 나는 성공한 훌륭한 학생이다. 나는 항상 무엇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빛을 보여 달라고 계속 간구하였다. 나는 외로움을 공유하기 위하여 오르토독스(정통파) 웹 사이트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역겨운 온라인 대화는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내 머리 속을 갉아먹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교회에 가서 사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기도해라." 라고 하고 있었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해하지 못 한 것은 사람들이 왜 예수에게 기도하고 있는지였다. 우주와 예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나는 오르토독스(정통파) 채팅방이나 교회에서는 찾고 있던 것을 찾지 못 하고 말았다. 어느 날 나는 기차역에서 무의식적으로 둘러 볼 때 나는 딱 내 나이에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머리에 하얀 스카프를 착용하고 흰 양복을 입고 어깨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우아하였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나를 향해 눈을 돌렸으며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얼굴에 환한 빛이 있었고 눈에 조명같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던 현명한 사람의 평온함을 가진 표정을 가지면서 침착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애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

입술에 감미로운 미소까지...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그녀를 존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거의 그녀를 만나러 갔을 것이었다. "제발 당신이 가진 그 차분한 태도를 저에게도 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구걸하려고 하였으나 기차가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

내 영혼을 불에 태우고 사라진 그녀 후, 나는 대학에서 그녀처럼 머리에 스카프를 쓴 친구들을 사귀었다. 어느 날 그들은 라마단 달에 단식을 깨는(이프타르)에 나를 초대하였다. 나는 알라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과 그들의 진지한 숭배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에게 결코 거리를 두지 않고 나에게 진심으로 대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와 같았다. 이것은 내 주변의 무슬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상황이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는 대화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종교를 바꾸고 무슬림이 되어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나는 아직 무슬림이 아니었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 방에 빛이 새고 있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진정한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의 시야를 넓혔고 나는 이슬람에 있는 하나님, 신앙, 예언자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수에 대한 꾸란 구절을 보고 총 맞은 것 같았다. 마리암(마리아)이라는 이름의 장이 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성경에서까지 마리아를 위한 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오르토독스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번에 진지하게 금식을 시작하였고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이 나에게 말한 것들을 숙고하고 있었고 내 뇌는 생각의 경기장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한 분의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는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을 거의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기독교인이었다. 나는 "하나님, 왜 나를 무슬림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투덜거리고 있어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채팅하고 있던 여자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예언자 무하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말씀으로 시작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아이들은 피트라(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상태로 즉 무슬림으로 태어나니라. 그러나 부모가 그들을 유대인, 기독교인 또는 조로아스터교인으로 변화시키니라." (Bukhari (부카리)가 전함, Jana' iz(자나이즈), 93; Muslim (무슬림)이 전함, Qadar(카다르), 22-25). 나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의 불만은 헛된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무슬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나에게 보낸 여성은 예수의 마지막 열 두 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열정"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하였다.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예수의 원어인 '아람어'였다. 영화에서 예수는 무슬림처럼 "알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그녀가 말하였다. 그녀는 또한 성경과 율법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유사성에 대한 예를 보냈다. 예를 들어, 살라 (이슬람교의 예배)에 대해 : "오라 !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6)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만수기 16:20-22)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출애굽기,34:8)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39) "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마태복음, 17:6)

결과적으로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로 시작된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은 아담과 함께 시작하여 주요 예언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함께 계속하여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와 함께 온전하게 되었다. 그 메시지를 몇 번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 마음은 흥분으로 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은 하나입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무슬림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시든 가슴에 산들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나의 첫 예배는 정오예배였다. 나는 단지 비쓰밀라(알라의 이름으로)를 말할 줄 알았다. 나는 내 손을 어깨 위로 들었고 무슬림 친구들처럼 "비쓰밀라"라고 하였다. 내가 아는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계속 반복하였다. 비쓰밀라, 비쓰밀라, 비쓰밀라. 나는 허리를 굽혔다. "비쓰밀라,

나는 엎드렸다. “비쓰밀라. 내가 그동안 찾고 있었던 것은 당신이었다. 잠들지 못 한 밤에 찾고 있었던 것은 당신이었다.

내가 한 말도 느낀 감정도 표현하기가 힘들다. 표현하기 힘든 시기였다.

그 예배 후에는 책들을 골라서 밤새 읽었다. 이슬람을 배우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고 알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인간, 삶, 세계와 내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정리되었고 내 어두운 방의 벽이 산산이 부서져갔다. 이슬람과 함께 온 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내 자신에게 두번째 이름으로 햇빛을 뜻하는 “Solnyechniy Luch” 를 지었다.

나는 아직 내 가족에게 내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나의 가장 큰 꿈은 가족 모두와 함께 알라께 엎드리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완전하게 느끼게 할 믿음을 찾고 있었다...

아흐마드

나는 1948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노동 계급 출신이며 잉글랜드 성공회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 집에서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녀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는데 반대로 아버지는 종교적인 주제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어떤 종교에 대한 경향도 없었고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었다.

나는 학교 시절에 교회로 보내졌으며 성경의 역사를 읽는 것과 같은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 주제들은 날마다 나를 더 많이 끌고 있었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나의 모범으로 골랐다. 나는 소설 속의 인물처럼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내가 2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가치" 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모든 것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와 같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조건에서 자유였다. 내 인생의 이 시기는 1960년대였다. 나는 사회적 제재의 압력에 따라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어서 무정부주의자 그룹에 참여하였다. 나는 사회의 제한 없는 삶을 받아들였다: 규칙 없이 자유로운 생활. 그때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복과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친구들과 환각을 보게 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목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치 클럽에 모여 무엇을 마시는 것 같았고 정치와 시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때는 베트남 전쟁이 발생했을 때였고 우리는 경찰서로 그룹으로 걸어 돌을 던지곤 하였다.

그것들은 내 사회 생활의 일부였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와 같은 의견을 공유한 사람들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였고 같은 의견을 공유한 사람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읽은 첫 번째 책은 러시아 작가인 Alexander Berkman의 “무정부주의의 ABC”였다.

26살 때 무정부주의에 대해 실망하였는데 그런 다음 “자연식 철학”을 통하여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었다.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야채와 현미와 같은 자연 식품을 섭취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인공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정부주의의 종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자연식 철학에 더 관여하였다. 이 철학은 식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종교로 간주한다. 그들은 현미와 야채만 먹기 때문이다. 이 식습관은 암치료에도 사용되며 성공적인 방법이다.

2~3년 후, 나는 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사고에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나는 뉴 에이지 철학에 집중하였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과 같았다. 사실, 나는 내가 신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역사와 철학에 관한

많은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뉴 에이지 사고와 명상에 대해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다음 캘리포니아로 갔다. 나는 삶의 중심이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곤 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가는 것은 뉴 에이지 사상의 연장과 같았다. 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2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고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결혼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헤어졌다.

그 경험 후 혼자 살고 성생활을 멀리하는 것을 권고하는 Rajneesh group(라즈니쉬 그룹)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생활 방식을 가졌다. 나는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방황하였다. 나는 무엇이 나를 방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그들이 찾은 것을 찾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찾을 수 없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삼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머무른 후 영국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느껴서 나는 1982년에 서른네 살 때 런던으로 돌아 가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돌아왔을 때 불교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뉴 에이지 철학을 떠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두 사고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서구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내 자신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희망으로 교회에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가 영국 사회에서 특정 계층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 계층의 종교가 아닌 그런 믿음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교회에 가는 동안 불교의 명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특정한 신념이 없었지만 다른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각 사고의 일부를 취함으로써 내 자신의 철학을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명상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2주간의 집중 명상 수업에 참석했다. 오전 4시에 명상을 시작하고 오후 9시까지 계속했으며 식사 시간 외에는 시간당 5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우리

점심 시간은 두 시간이었고 정오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하였다. 이것은 불교의 전통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아무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고 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 훈련으로 일상 생활과 남은 인생을 지속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나중에는 매 순간 명상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였다. 따라서 나는 이것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의 표현"을 의미하는 "Nova(노바)"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음을 표현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성인으로 간주되는데 그들이 자연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자아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말도 안되거나 무의미하더라도 내게 감동을 줄만한 것을 발견하면 받아들일 것이었다. 나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완전하게 느끼게 할 믿음을 찾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얼마나 미친 생각인지에 신경 쓰지 않았다.

1984년에 나는 런던의 Camden Town에 있는 시장에 가곤 했었다. 그 당시에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작은 가게에서 그림 도구를 반값에 팔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토요일에, 나는 다시 그 곳에 갔으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옆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그림 도구를 파는 남자를 보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가게 주인이 그 날 거기에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 남자는 무슬림처럼 보였고 스코틀랜드의 방언을 쓰고 있었다. 그에게 무슬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나는 그에게 "폭력적이고 엄격하며 극단적인 종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였다. 사실 나는 이슬람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궁금해한 적도 없었다. 어쨌든, 그가 내게 준 대답은 "왜 당신은 주변에서 듣는 것을 믿는 대신 이슬람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까?"였다. 나는 불교와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마지못해 말하였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그들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였다. 사실, 그는 매우 친절하였는데 그 이유 때문이라도 궁금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이후 첫 금요일에 나는 East-West Centre(동서 센터)에 있는 회의에 갔다. 머리 스카프와 녹색 망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장소는 터키 성원과 같았다. 그들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앉아 꾸란을 암송하기 시작하였다. 몇 마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알라, 알라”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매우 평화로웠다. 꾸란을 낭독 후, 그들은 나에게 매우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 나는 누군가가 음식을 위해서만이라도 여기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나는 그 날 밤 매우 흥미로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무슬림이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매우 명확하고 혼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았다. 일어나자마자 “아니, 무슬림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였다. 꿈에서는 한 집에 가서 무슬림이 되는 것이었다. 그 집에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 있었고 나는 그 방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곳에서 유일한 무슬림이었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 외에는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는 무슬림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꿈을 명확하게 기억한다.

그 회의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나는 항상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뛰어 들어서 그 회의들에 참석하려고 하였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것을 찾고 있었다. 나는 금요일 밤마다 이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여성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홀의 다른 구역에 앉아 있었으나 나는 “만약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좋은 것일 거야.”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들은 너무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때 좋은 느낌으로만 가득찼다. 내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나와 기꺼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내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고 내가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Hodja (스승님)가 오면 그를 만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조언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님에 관해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서너 달 후에 그 사람이 왔다. 그는 Peckham 지역의 성원에 왔었는데 나는 그곳에 가서 그를 영적 가이드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무슬림이 아니었다. 나는 디키르에 즉 (알라를 생각하는 것)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를 만나고 나도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듣고 그들처럼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나는 스승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는 스물 또는 서른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고 이맘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이 일은 1985년 1월에 이루어졌다. 나는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처럼 편안해졌다. 과거의 경험과 비교할 때 매우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지만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것을 이슬람에서 찾은 것이었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의심했고 이것이 현실일 수 없는 줄 알았다. 아무도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기 전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당신은 지금 우리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도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과정은 약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슬람을 완전히 수용할 때까지는 5년이 걸렸다. 나의 첫 생각은 내가 이제 무슬림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것은 나에게 일종의 신분이었다. 무슬림이 되고 이슬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오늘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예배를 놓치는 것을 싫어하며 예배를 놓치면 너무 불편하다. 이제 나는 모든 의무를 제때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고 믿는다.이슬람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실제로 인간을 평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25년 동안의 거부 후에 알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브라힘 카를손

나는 평범하고 종교적이지 않고 서로 사랑이 깊은 관계를 가지는 스웨덴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나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25년 동안 살았다. 나는 또한 물질주의자의 본보기였다.

진짜 그랬을까? 내가 7학년에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 쓴 짧은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 나는 성공적인 게임 프로그래머로 자신을 묘사하고 무슬림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그때 무슬림은 긴 옷을 입고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곤 했었으나 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른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기억난다. 어느 날 나는 꾸란의 번역본을 집어 들고 한 구절을 읽었다. 나는 내가 읽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말한 것이 의미있고 나에게 논리적으로 들렸던 것을 발견한 것을 기억한다. 그래도 나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고,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 뉴턴이 있죠?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일하기 시작하였고 나는 돈을 벌고 자신의 아파트로 옮겼다. 나는 열정적인 아마추어 사진가가 되었고 그 주변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스냅샷을 찍어 시장을 기록하고 있을 때 화가 난 이민자가

와서 텔레마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이상 그의 엄마와 여동생의 사진을 찍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무슬림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였다.

이슬람과 관련된 더 많은 일이 일어났다. 스웨덴에서 “이슬람 안내 기구” 라고 불렸던 그들의 뉴스레터를 구독했는데 그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Yusuf Ali의 꾸란 번역과 이슬람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인 Islam–Our Faith(이슬람–우리 신앙)를 구입하였다. 그것들을 왜 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거의 꾸란 전부를 읽었으며 그것이 아름답고 논리적인 것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었다. 1년 후, “아름다운 섬” (진짜 아름답다.)이라는 땅에 단풍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환상적인 느낌에 압도되었다. 마치 내가 우주라고 불리는 위대한 기어 박스에 있는 기어의 이빨처럼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멋있었다! 나는 결코 이렇게 느낀 적이 없었고 완전히 긴장을 풀었지만 에너지가 넘쳐 눈을 어디에 돌려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이 황홀한 상태에 얼마 동안 처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일이 끝나고 차를 집으로 몰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당시 Microsoft는 컴퓨터 업계에서 가장 큰 마케팅 공세로 Windows–95를 시장에 출시하였다. 패키지의 일부는 Microsoft 네트워크의 온라인 서비스였다. 나는 궁금해서 MSN 계정 하나를 만들었다. 얼마 후 나는 이슬람 BBS가 MSN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Shahida(샤히다)를 만나게 되었다.

Shahida는 나처럼 이슬람으로 입교한 미국 여성이다. 우리는 케미가 맞았고 그녀는 내가 가진 가장 친한 펜팔이 되었다. 그녀와 나는 일반적으로 이슬람과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토론했으며, 그녀가 쓴 내용은 나에게 의미있었다. Shahida는 나의 느리고 어리석은

질문에 천사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나에 대한 그녀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으면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진실을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발견하였다.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에서 잠 들어 있었다. 일몰을 좋아하는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아름답게 분산된 구름을 칠하고 모든 부분이 함께 모이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왔다.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보면서 물리와 화학에 어떻게 의존할 수 있었는가? 완전한 깨달음과 평화를 느낀 훌륭한 몇 분이었다.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한 참 걸렸다.

그랬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뇌를 또렷하게 관통하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회가 가득 찬 또 다른 날에 깨우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이었다.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웠다. 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탐험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후,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 났고,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고, 예배하고 시도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뉴욕에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면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성공한 것으로 변했으며, 결국 Shahida를 만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인도하셨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읽고 마침내 가장 가까운 성원에 전화하고 어떤 무슬림들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용기를 냈다. 떨리는 다리로 나는 전에 앞에서 여러 번 지나갔지만 방문하지 않은 성원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많은 독서 자료를 받았으며, 그

형제들을 그들의 집에서 방문 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말한 내용과 대답은 모두 논리적이었다. 이슬람은 내 삶의 주요 부분이 되었고, 의무 예배를 시작했고 처음으로 금요일 합동 예배에 참석하였다. 정말 훌륭하였다. 성원에서 뒤에 조용히 앉았고 이맘(예배를 지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은 매우 즐거웠다. 금요일 설교 후 우리 모두는 직선으로 모이고 두 라카의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아직도 나의 이슬람 여행을 하는 데 가장 경이로운 경험 중 하나이다. 하나의 것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헌신한 이백 명의 성실함은 위대하다고 느꼈다.

내 정신이 점점 내 마음과 동의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자신을 무슬림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었는가? 문제가 될까봐 스웨덴 국교회를 떠났지만 하루에 5 번 예배하는 것? 돼지고기를 그만 먹는 것? 나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또 가족하고 친구들은?

나는 어느 곳에서나 이슬람이라는 단어로 거의 모든 웹 페이지를 수집했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바꾼 것은 영국에서 찾은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새로 개종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이슬람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결정하였다. 이제 무슬림이 되어야만 하였다! 여름의 초기는 너무 추웠다. 다음 날 아침 내 침실 창문 밖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강철의 회색 하늘…하나님이 내 시간을 정하신 것처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필요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차를 타서 성원으로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하였다.

성원에서 나는 소망으로 형제들에게 다가갔고, 정오기도 후에 이맘과 일부 형제들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알함두릴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의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나의 개종을 잘 받아들였다. 그들은 지정된 시간에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거나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등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이상한 외국 관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이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슬림으로 사는 것을 즐긴다 ...

미쓰 라라

나는 스칸디나비아 출신인 캐나다 사람이다. 나는 1993 년 2월, 23살부터 무슬림이다. 자라면서 나는 어떤 종교와도 관계가 없었지만 무신론자도 아니었다. 내가 10대 중반에 있었을 때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타위히드). 기독교는 결코 나의 관심을 끌지 못 하였다.

무슬림과의 첫 접촉은 1988년에 일부 무슬림 유학생들과 만났을 때 일어났다. 그들 덕분에 나는 라마단 단식 등 이슬람에 대해 조금 배웠다. 그러나 1992년이 되어서야 이슬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해 여름에 한 캐나다 신문은 이슬람 자체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일부 무슬림들의 이슬람에 어긋난 행동의 사례를 사용하여 이슬람을 공격하는 일련의 기사를 발표하였다. 비무슬림들은 무슬림의 행동에 근거하여 이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때 아직 무슬림이 아니었지만 기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글이어서 이슬람 방어를 위하여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제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몇 달 전에 대학교의 MSA 이슬람 인식 주간 (Islam Awareness Week) 디스플레이에서 읽은 기사를 다시 읽었는데 하나는

“이슬람의 예언자로서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 한 무슬림에게 이슬람에 관한 책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책들은 이슬람의 전반적인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었고 유명한 두 명의 무슬림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었다. 나는 감명 받았다. “이것이 이슬람이야? 너무 옳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였다. 대학에 다니는 자유 시간에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이슬람에 대해 계속 배웠다. 또 Muhammad Haykal 박사의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생애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을 읽었다. 어느 누구도 대중 매체를 통해 이슬람에 관한 진실을 배우지 못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슬람에 새로 온 사람들은 이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탈 그룹의 글을 특히 피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저자가 아랍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무슬림이거나 심지어 무슬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이슬람을 압력을 가하지 않은 지식이 풍부한 무슬림에게 대해 배웠다. 한편, 나는 큰 변화가 필요없었던 나의 행동을 이슬람에 따라 바꾸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미 술과 돼지 고기 섭취를 피한 상태였다. 또한 나는 항상 보수적으로 옷을 입는 것을 선호했으며 집 밖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고, 향수를 뿌리지 않고 또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할랄 고기(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된 동물의 고기)만 먹기 시작하였다. 또 나는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성원을 방문하였다.

이슬람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들어 본 “이슬람”이 진정한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을 발견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 나는 이슬람이 진리라는 것을 몰라서 항상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무슬림이 되기 위하여 무슬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었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무슬림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몰랐다. 많은 “서양인”처럼 나도 이슬람을

“동양”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이슬람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세계적인 종교인 것을 몰랐지만 나는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 알함두릴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내가 이슬람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수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신념이 실제로는 “상식”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도 실제로 무슬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슬람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무슬림 개인의 의무와 올바른 행동을 배웠고 이슬람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 어느 날 무슬림이 되었다. 어느 날 집에 있었을 때 신앙을 고백하고 매일 다섯 번 의무 예배를 시작하였다. 알함두릴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것은 단식하는 달인 라마단이 시작되기 며칠 전인 1993년 2월이었다. 이번에 단식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생각보다 단식이 훨씬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식하기 전에 기절할까봐 걱정하였다. 처음에는 의무 예배의 규칙과 단식에 익숙할 때까지 실수를 했지만 어렵지는 않고 흥미로웠다. 압둘라 유수프 알리의 꾸란 번역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책들에서 발췌 부분만을 읽었었다. 또한 처음에는 유수프 알-카라다 위 박사의 “이슬람에 관한 법률과 금지”라는 유용한 가이드책을 알게 되었다.

1996년 1월, 나는 이슬람 머리 스카프(히잡)를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의 착용없이 알라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슬람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은“자신을 위한 대안종교”가 아니다. 무슬림이 된 이후로 나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머리 스카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을 착용하려고 하였다. 많은 무슬림들에게는 그 단계에 도달하여 비무슬림 사회에서 히잡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기독교 수녀들은 그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결코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주저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알라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히잡을 영구적으로 착용하기 몇 달 전에 그것을 착용하는 연습을 시작하였다. 나는 금요일 합동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금요일에 집에서 성원에 갈 때 히잡을 썼다. 물론 무슬림이 된 이후로 나는 예배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썼다. 몇 주 전에 나는 알라께 히잡을 쓰는 것을 쉽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영구적으로 착용한 날은 더 이상 히잡없이 외출할 수 없다고 느꼈던 단계에 이르렀다. 혼자서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이슬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착용하자마자 나는 즉시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외출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남자의 응시 대상이 아니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를 보면 놀라워한다. 아마도 그들이 푸른 눈에 하얀 피부를 가진 무슬림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래로 나는 모든 무슬림에게 남성과 여성의 평생 의무인 종교에 대한 지식을 계속 찾고 있다. 현재 아랍어를 배우고 있으며 곧 꾸란을 아랍어로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샬라. 책을 읽는 것, 다른 무슬림들과 이슬람에 대해 토론하는 것과 금요일 설교, 모두는 교육적이다. 자신의 사악한 특성(지하드 알-나프스)에 맞서 싸우려면 노력이 필요하며 끈기가 있어야 되며 무슬림을 위해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슬림으로 사는 것을 즐긴다 ...

...미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종교를 찾고 있었다...

짐 클린깅

부모님은 알라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놀리곤 하였다. 그들은 알라, 예언자와 종교의 개념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었으며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은 웃기는 것이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다. 친구들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고 있었지만 나는 단지 그들이 거기에 가는 것만 보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약학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화학 수업은 특히 관심을 끌고 있었다. 기술로는 1500도의 온도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인체에서 37도의 온도에서 생성되고 있었는데 과학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학청 시절 동안 그러한 사례에 익숙해 있었다. 결코 잘못되지 않은 이 질서의 창조주가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나는 내 안에서 알라의 존재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공허함에 빠지고 있었고 알라를 더 잘 알아야 하였다. 나는 내 룸메이트 로베르트에게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3년 전부터 무슬림이었다.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꾸란의 영어 번역을 주고 "이것을 읽으면 너에게 모든 것이 바뀔 거야."라고 말하였다. 나는 또한 성경을 가지고 두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목적은 두 종교를 비교하는 것이었고 스스로를 위하여 종교를 찾고 있었다. 나의 종교는 미신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은 다음 꾸란을 읽었는데 차이는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꾸란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수년 동안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고, 내 안에 텅 빈 느낌 때문에 우울하였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성격에 분열이 있었다. 심지어 자살할 생각까지 했었으나 꾸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은 의미와 가치를 얻었다. 세상은 일시적이지만 사망 후에 부활이 있으며 우리는 알라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무슬림이 되었다. 이제 나는 피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종교와 알라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창조자”를 마침내 찾은 것이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랐다...

압드 알 아지즈

과거를 기독교인으로 보낸 후 이슬람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고 항상 이 아름답고 복잡한 생물을 조직하고 계획한 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하여 보내지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우리를 창조하고 통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경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자랐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친척들이 그랬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독교 종파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천주교인이었으며 친구들 중 하나의 아버지는 개신교 장로파의 목사였다. 나는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일요일에 교회 의식에 가곤 하였다. 나는 또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나는 어린 나이에 기독교 종파들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자신의 종파가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납득하지 못 하였다.

대학교를 위해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무슬림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궁금하였다. 무슬림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초기 예언자들을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놀랐다. 나는 기도, 단식, 히잡 및 이와 유사한 이슬람 가르침들이 성경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슬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예수님에게 주어진 신성이다.

무슬림들은 알라는 하나이며 피조물과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 있었다. 피조물과 알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신성하고 삼위 일체의 일부였으나 무슬림들은 예수가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도 일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검토했으며 무슬림들이 예수를 더 잘 이해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먹거나 마시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예수는 먹고 있었다. 예수는 알라에게 기도하고 단식하고 경배하고 있었다. 그가 신성했더라면 왜 스스로 그것을 했겠는가? 나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 하였다.

나는 무슬림의 거룩한 책 꾸란이 아무런 변화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 무슬림들은 꾸란처럼 무함마드의 가르침도 보존해온 것이다. 그들은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따르고 있다. 그들의 교파들은 기독교에서처럼 자신의 이해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 나는 이슬람이 부패되지 않고 알라를 가장 올바르게 묘사하고 삶과 사회, 개인의 균형을 이루는 이해라는 것을 보았다. 예언자 무하마드의 전기를 읽을 때 그의 적들조차 그의 미덕을 언급한 것에 놀랐다.

이슬람은 세계적인 종교이다. 나는 내 안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이슬람에서 평화를 발견하였다. 알라는 하나이며 그분의 존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영된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의 형벌과 보상 때문에 그분을 숭배한다.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슬람에 대해 배우면 배울 수록 무슬림이 되는 것이 올바른 결정임을 알게 되었다.

...무슬림인 것이 완벽하다...
Subhāna Rabbi al-'Azīm...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

야히야

내 인생의 첫 17년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보낸 젊음과는 조금 달랐다. 캘리포니아 서부 리버 사이드 카운티에서 우리 가족이 우유, 치즈 및 고기를 위하여 평균 150 ~ 200마리의 가축을 길렀던 시골 염소 목장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로스 앤젤레스 시내의 이슬람 센터에서 몇 블록 떨어진 이슬람 식품 시장에 고기를 공급하는 할랄 정육점 (이슬람 방식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불가지론자나[1] 무신론자로 자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와 유일성을 믿는다. 그는 한때 무슬림 친구가 많았지만 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로 자라서 기독교에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처럼 삼위일체는 무시했었다) 나와 동생들은 홈 스쿨링을 받았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홈 스쿨링 가족은 기독교 신자이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일부 홈 스쿨링 지원 그룹들로 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나를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그룹들과 만나게 하였고 이것은 내 눈을 뜬 경험이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에서 실제로 예수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1 불가지론 :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항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종"을 잘못 번역된 것이므로)를 믿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적으로 말도 안되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동안 나는 가족이 반갑지 않은 헤비메탈 음악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 인생은 내 음악 컬렉션을 확장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개인 청결을 피하고 내 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긴장되었지만 간헐적으로 만나곤 하였다. 이것을 쓸 때도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해 초에, 나는 기독교 라디오의 "예언 전문가"의 계시에 대한 횡설수설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피해망상적인 음모론들과 "이슬람적 위협"에 대한 불 같은 설교가 나에게 이상한 매력을 안겨주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내가 만든 공허함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이 복음전도자[2]들의 신념이 나의 신학적 아이디어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붙잡을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나의 전환점은 조부모의 집에 이사했을 때였다. 컴퓨터 전문가인 할머니는 아메리칸 온라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도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갔을 때 아메리칸 온라인(AOL)과 유즈넷(Usenet) 뉴스그룹의 종교 폴더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이슬람에 대한 토론이 가장 흥미로웠다.

나는 이 종교의 신념과 실천이 기본적인 인간 논리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신학과 지성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의인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제시한다. 이슬람은 평신도에게 이해할 수

2 복음주의 교회 : 미국 개신교 교파.

있는 거룩한 책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 문제에 있어 결코 틀리지 않는 교황권이나 신권은 없다. 모든 무슬림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으면 이 책을 자유롭게 반영하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이슬람에는 선택된 인종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꾸란의 영어 번역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114장에 들어있는 알라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성과 진짜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성장 시기에 무슬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언론과 텔레비전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피에 굶주리고 야만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개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슬람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1995년 11월에, 나는 가든 그로브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이슬람 커뮤니티에 가서 도서관 책임자에게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는 작은 마스지드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고 그 주에 예배하는 법을 배웠다. 무슬림인 것이 완벽하다. 수브하나 랍비얄아딤(가장 위대하신 나의 주님이신 알라에게 찬미를 드립니다.)

...내 돈, 집, 교육, 자동차, 보석류; 그것 중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자밀라

누가 나에게 와서 언제 무슬림이 되었는지 물어보면 나의 답은 “태어났을 때부터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와 생활 양식으로 길을 잃고 산다. 나도 길을 잃었고, 알라가 내 고통을 느끼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알함두릴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이슬람과의 첫 만남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요일 예배에 초대 받은 대학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집으로 초대한 대단한 무슬림 자매들을 만났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이국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거절하였다. 나는 너무 많은 고정관념을 쌓은 상태라서 지식을 위한 초대라도 이슬람이 둘러싼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지 못 하였다. 알라가 다음 메시지를 내 집 근처의 기술 고등학교에서 사귀게 된 친구 중 여러 아랍 무슬림과의 우정을 통하여 보내셨다. 이것은 이슬람 생활 양식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들이 파티와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여러 번 앉아서 여러 번 예배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단식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는 것인지 알지 못 하였다. 나는 관찰할 뿐이었으며 그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하나도 몰랐다.

내가 무슬림이 되었을 때 그것은 알라가 나를 발견하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모든 혼란에 대한 답을 내게 준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물질적인 면에서 보는 것을 잘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정신이 불안하였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것들이 인생이 나에게 가하는 어떤 타격이라도 완화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만큼 영적으로 취약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23살이었을 대 죽었다.내 돈, 집, 교육, 차, 보석류 모두가 나에게 무의미해졌다. 나는 그녀의 죽음이 세상에 일어나는 단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더 이상 알라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어떤 목적으로 봉사했을까? 이 세상에서 그녀의 삶은 중요했을까? 나는 그녀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지식에 굶주리기 시작했고 알라에게 온 마음을 열었다.

알라를 마음에서 느끼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상황의 설명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은 의식, 언어, 문화 또는 국가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함이며, 이전에 배운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다. 보고, 듣고, 내 마음을 여는 동안 나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알라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하시며 사람들의 삶에 다른 영향을 미치신다. 나는 알라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왜 내가 이 길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야 하였다. 나는 처음에 관찰만 한 의식들의 배후에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꾸란을 읽기 시작하였다. 알라께서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마음의 광대한 구멍을 채우셨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을 그만 두고 무슬림들과 꾸란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을 때, 나의 전환은 너무나도 쉬었다.

그런 다음 대학에서 만난 반 친구인 무슬림 자매와 연락하였다. 많은 무슬림 자매들은 한 달에 한 번 공부, 예배 및 정보 시간을 위하여 모인다. 나는 또한 금요일 합동 예배 때와 시간이 있을 때 성원을 방문하곤 했었다. 남편과 나는 꾸란과 하디스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무슬림이 되었으면 새로운 길의 시작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 온다. 알라는 매일 다른 방식으로 본인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때로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하거나 나에게 인내심이나 이해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또 때로는 인내심이나 평화로운 마음 상태이다. 사건이 무엇이든, 나는 항상 알라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또한 이 탐구에서 고군분투하였다. 우리 가족은 나의 새로운 생활과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나한에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나의 답은 그녀를 놀라워하게 한 것은 틀림없었다. 나는 우리가 이슬람에서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고 간단히 설명했으며, 실제로는 이제야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예수, 아브라함, 무함마드(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라가 여러 시대에 걸쳐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공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무슬림으로서 지식은 우리에게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우리는 알라에 대한 진실과 친밀감을 찾는 데 자유롭다.

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구 문화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이슬람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우리가 평화로운 기독교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근본주의자나 또는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형태의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불친절함과 나쁜 불친절한 시선에 대항하는 방법은 친절과 이해를 통하여서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해력이 너무 낮아 무슬림 공동체가 말한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닫았던 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무지 때문에 나를

떠나 버렸다면, 나는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내와 동정심을 갖는 것은 모든 무슬림에게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알라는 참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가장 큰 선물...

알리 크리스핀

나는 1930년에 영국 요크셔 도시에서 개신교 분파인 감리교인 부모의 마지막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 집에는 가족의 헌신이 중요했던 엄격한 환경이 있었고, 옳고 그름은 특정한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가족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우리 집에서의 생활은 무슬림 가족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도박이나 음주가 없었고 품위있는 생활 방식이 있었다. 교회에 가는 습관에 관해서는,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매너를 가르쳤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인생에 한두 번만 교회에 갔다.

나의 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한 견해가 약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념 체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아버지의 생각과 기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약에서 예수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은 아버지가 주장한 것과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종교적 믿음과 숭배 측면에서 머리가 매우 복잡하였다. 내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와 내 생각에 있는 예수의 특성은 불행히도 달랐다. 나는 믿음의 관점에서 위선자처럼 행동하였다.

나는 1955년 스물 네 살 때 수에즈 운하에서 군복무 때 이슬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우리를 도와 주었던 굉장히 친절하고 행동에서 진정한

이집트 무슬림이 있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첫 째는 이집트 무슬림이 부활절에 나에게 와서 예수도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룸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집트인 압둘라에 관한 것이었다.

압둘라는 우리 캠프의 직원이었다. 어느 날 정말 감동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침실용 탁자 위에서 시계를 잊었는데 내가 돌아 왔을 때 이미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영국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였다. “이집트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 잠시 후 압둘라가 들어 왔다. 그는 방을 청소할 때 시계를 보고 서랍에 넣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의 시계를 서랍에서 가져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도둑질을 장려하기 위하여 귀중한 물건을 두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모두 다 이슬람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도덕적 교훈을 주었다.

저는 1969년에 파키스탄에 가서 영국 의학 연구소 회의에 연설가로 참석하였다. 이것은 책을 읽고 알게 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꾸란의 번역본을 받았다. 나는 파키스탄으로 가기 전에 이 번역을 계속해서 읽고 1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 왔을 때 꾸란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다. 그것은 내가 매우 행복하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나의 다른 경험은 1972년에 터키에서 일어났다. 나는 터키에서 한 회의에 초대를 받았는데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무슬림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의 사우디 아라비아인 의사 친구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이 친구는 나를 향해 물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것을 숭배합니까?” 그는 물었다. 나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느끼지 못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맞습니다. 그분 외에는 믿을 만 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실 당신은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이미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고 하는 샤하다(신앙 고백)의 첫 번째 부분을 승인한 것이었다. 사우디 친구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많이 놀란 기억이 난다. 나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친구가 “당신은 무슬림입니다.”라고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런 다음 영국으로 돌아가서 꾸란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때부터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오랜 과정이었다.

나는 진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무언가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내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을 다룰 때, 창조, 우주의 존재와 사회적 일들의 징후에 대한 설명이 더 쉬워진다. 한 수학 문제를 단계 별로 푸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수학 문제가 있었고 결론에 도달하면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이며 내 존재의 수수께끼였다. 의사로서 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고 인생은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끝날 것이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의 이해는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정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슬람은 “진화”와는 문제가 없었으며 또한 창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다. 꾸란은 창조의 날들을 언급하나 이 날들은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언급된 세계의 날과 동일하지 않다. 기독교에서 언급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우주의 시작”은 이슬람에서 문제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슬람에는 마음과 논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이야기와 가정이 없다. 나는 꾸란에서 읽은 이러한 이해를 기억한다. “...그대 주님 곁에서의 하루는 너희들 계산으로 천년 같으니라.” (꾸란, 22:47) 창조의 논리와 이유가 밝혀지면, 이슬람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문제없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1981년 일요일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떤 특정한 의도 없이 너무 색다른 건축 양식을 가진 리젠트 파크 성원을 방문한 날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성원 주위를 걸어 돌아 다니다가 나는 성원 밖에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으며 그것을 간절히 보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슬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사우디 아라비아 의사가 9 ~ 10년 전에 나에게 말한 것이 떠올랐다. 약 3개월 후에 같은 성원에 가서 54세에 신앙을 고백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나는 26살 때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하여 28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세 자녀가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무슬림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전에도 성원에 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아내는 암에 걸려 우리는 그녀를 잃었다. 그녀는 내가 무슬림이 된 나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이들은 20대였다. 그들은 내가 무슬림이 된 것에 약간 놀랐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들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고려하면 때로는 그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무슬림으로 어떤 종류의 보석을 얻었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그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슬람은 진정한 상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한계가 필요하다...

샤론

나는 1957년에 영국 체셔주에서 중상층 가족에 태어났다. 가족은 잉글랜드 성공회 신도였지만 별로 종교적이지 않았으며 종교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항상 내 가족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왔다. 우리는 집에서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또한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다. 나는 자라면서 종교적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 학교에서도 한 시간 동안만 종교 수업을 듣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기도만 읽곤 했었다. 나는 학교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아무것도 배우지 못 하였다. 내가 이슬람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은 무슬림이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매우 종교적인 가족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녀가 가진 신앙을 갖고 싶었다. 나는 항상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꿈을 꾸었었는데 꿈에서 항상 한 구멍에 빠지고 있었다.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하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유일한 일은 벌레에게 먹힌다는 것이라고 하곤 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친구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나는 무엇을 믿고 싶었다. 나는 그 때 열 여섯 살이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그들의 회의 중 하나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들의 회의는 나를 끌지 못 하였고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대해 배우려는 열망이 커지고 있었다. 그 날들에 대해서 기억에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1975년에 대학에 진학하고 색다른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언어를 선택한 이유는 아랍 국가들의 중요성이 석유로 인해 증가한 데 있었다. 아랍어를 통해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으며 그냥 배우고 있었다. 나는 4년 동안 대학의 아랍어과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을 듣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영국 사회처럼 허세 부리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무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슬람으로 입교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기독교인 친구들로부터 방어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특히 수단을 방문했을 때 이슬람에 있는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던 무언가가 나를 끈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3학년 말에 수단에 갔는데 수단 사람들에 대해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항상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좋아합니까?"라고 묻곤 했었다. 나는 그들이 라마단 달 동안 밤에 수후르(단식 준비 위하여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먹는 식사)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 하였다. 되돌아

보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나에게 무슬림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 되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이 선교사처럼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 많은 감명을 받았다. 아무도 나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졸업 후 런던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나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사업을 시작한 후 인생에서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클럽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나는 그것들 중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느꼈을 때 무슬림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신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선택 사항 중에도 이슬람이 최고였다.

나는 점차 이슬람으로 향해갔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4년이 걸렸다. 나는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1979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반쯤은 무슬림처럼 살았으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에 전적으로 항복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나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숭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고 때로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컨대 이 상황은 이대로 계속될 수 없었다. 나는 완전한 무슬림이 되거나 포기해야 하였다. 1980년 11월, 나는 사회에서 평범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 이대로 하지 못 할 것을 깨달았고 23살에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믿음이나 내가 무슬림이 된 순간을 목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신앙 고백을 사람들 몰래 하였고 무슬림이었다는 것의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나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 나의

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슬람에 대한 나의 헌신은 몇 년을 걸쳐 발전하였다. 무엇에 한 번 항복하면 항상 그것의 길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믿으면서 하였다. 만약 하는 일을 믿으면서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이제 당신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영국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장소를 찾고 필요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면 여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어떤 반응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미 종교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때때로 그들은 내게서 웃겨 보인다고 생각하는 스카프를 벗으라고 하고 있었다. 나의 한 이라크인과의 한 첫 결혼 후로부터 친구들은 나와 연락을 끊었다. 그들은 내가 영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이라크에 가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어머니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영국으로 돌아 왔을 때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 아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그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이슬람에 관해 질문을 하고 내 대답을 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나는 첫 남편과 이혼 한 후에도 계속 무슬림처럼 살았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남편의 선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어머니는 그녀가 나에게 가한 압력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라크인 남편과 이혼한 후 영국인 무슬림과 결혼하였다.

나는 내가 믿지 않는 종교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그것을 찾고 있었다. 이슬람은 나에게 현세와 내세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길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이슬람이 나에게 준 것들이다. 당신은 자유롭지만 한계들이 있다. 그 한계들 사이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모르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는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을 때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에 처해 있었다. 특히 런던에서 보낸 해에 나는 동성애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슬람으로 얻은 것은 이 한계들이다.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 모두를 위한 참된 길이다. 이슬람은 이와 관련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세를 위하여 노력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내세를 위하여 노력하라.”라고 한다. 그것은 이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고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세속적 삶을 거부한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다. 반면에 이슬람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춘다. 사람은 영성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영성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 예배를 수행할 수 있다면 알라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이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퍼즐에 있는 모든 조각들이 맞았다...

후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와 알라가 그동안 나를 위해 계획을 하신 것이 보인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숩하날라"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알라께 나를 현재 있는 자리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한다. 때로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지 않고 모든 인생을 무슬림으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이 축복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인샤알라, 이 글을 읽으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무슬림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다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든, 당신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영감을 주든, 나는 읽을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인샤알라. 이것은 내 이야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베이 에어리어 교외에서 자랐다. 인구가 약 14,000명인 우리 작은 마을은 대부분 백인 중상층 기독교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언덕과 태평양 근처에 있는 계곡에 자리 잡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나는 이웃 모두를 알고, 길거리에서 야구를 하고, 개울에서 개구리를

잡고, 언덕에서 말을 탔으며, 앞 마당에서 나무에 올라곤 했었다.

아버지는 장로교 신도이고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이다. 아버지는 어떤 교회에서도 활동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가톨릭 신자로 키우려고 하였다. 그녀는 때때로 우리를 교회로 데려 갔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어 서서 앉고 무릎을 꿇고 다시 앉고 일어 서서 사제를 따라 무엇을 낭송하고 있었다. 각 좌석에는 소책자 - 일종의 "가이드북"이 있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하여 따라야 하였다(잠에 들지 않았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약 8세에도 첫 성찬을 받았다. 그 때의 사진이 있지만 기억하지 못 한다. 그 후, 우리는 교회에 일년에 한 번 정도 갔다.

나는 약 15 가구의 집이 있는 막다른 골목에 살았다. 문법학교는 네 집 건너 떨어진 작은 장로교 교회 옆 길 끝에 있었다. 내가 열 살쯤 되었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였다.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에 나는 교회로 혼자 걸어 가곤 하였다. 전체 회중은 50 대를 지난 약 30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진철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상황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3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나는 길 아래쪽에 있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6학년 때는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9학년이 되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의 아내를 도와주었다. 고등학교에서 네 명의 친구를 모집하여 교회 청소년 그룹을 시작하였다. 도시에 있는 큰 장로교회에는 청소년 그룹에 약 10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는 멕시코 등을 여행하였다. 우리 그룹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선 단체를 위하여 돈을 모을 목적으로 함께 모였다.

이 친구들과 나는 함께 앉아서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였고 우리는 머리속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예수가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들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간디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에 가는가? 반면에, 왜 상당히 끔찍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의 보상을 받는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의 희생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왜 아담의 원죄때문에 유죄인가? 성서는 왜 과학적인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가?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의 신이 세 가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토론했지만 좋은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교회도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주지 못하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고만 있었다.

교회의 사람들은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장로교 여름 캠프에 대해 말하였다. 나는 거기에 처음으로 열 살 때 갔다. 다음 7년 동안 나는 여름마다 거기에 갔다. 내가 가는 작은 교회에도 만족했지만 이곳은 혼란없이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한 곳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깊은 믿음을 발전시켰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야외 활동, 게임, 공예와 수영을 하면서 보냈다. 그것들은 재미있었지만 매일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가를 부르며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였다. 이 조용한 시간은 나에게 최고의 추억이고 정말로 큰 의미가 있었다. 규칙은 캠프의 아름다운 200 에이커에 이르는 어느 곳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종종 초원에 가거나 개울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에 앉아 생각하곤 했었고 내 주변, 개울, 나무, 구름, 벌레를 바라보고 물,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이곳은 나에게 진정으로 평온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하였다. 여름이 끝날 때마다 집에 돌아 왔을 때 그 느낌은 그대로였다. 나는 하나님, 삶,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리에 대해 생각하기 위하여 혼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였다. 나는 스승이자 모범으로서의 예수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발전시켰고 혼란스러운 모든 교회의 가르침을 떠났다.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주는 것", "받고 싶은 태도처럼 대하라."와 같은 가르침을 믿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열네 살 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첫 직장을 구하였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먼저 25 달러를 "Foster Parents Plan (양자 부모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있었다. 나는 4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셰리프(Sharif)라는 이집트의 어린 소년을 지원하고 매월 급여 수표의 일부를 보냈고 편지를 주고 받았다. 지금 그 편지들을 보면, 그는 자신보다 5살 많은 여자가 아니라 마치 성인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쓴 것이었다. 그는 9 살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내 나이에 형과 누나가 있었다. 16살 때 그에게 편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의 여동생이 약혼했기 때문에 흥분했었다. 나는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인데 약혼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내가 처음으로 접촉한 무슬림들이었다.

이 외에도 나는 고등학교에서 다른 활동에 참여하곤 했었는데 학교에서 중앙 아메리카 학생들을 영어로 과외하였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학생이라는 그룹에서 나는 니카라과 학교 아이들과 케냐 주민들을 위한 자선 단체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핵무기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우리 모두가 겪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핵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프랑스에서 온 교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전 세계에서 펜팔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를 위하여 이 나라를 방문한 남아공, 가자 지구, 과테말라 및 기타 전쟁으로 피폐해진 곳에서 온 젊은이들의 그룹인 "Children of War(전쟁의 아이들)"라는 그룹을 세웠다. 그들 중 두 명이 (니카라과 출신의 그룹의 보호자와 젊은 흑인 남자) 내 집에 머물렀다. 고등학교 3학년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난민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 봉사를 하였다. 우리 반에는 베트남에서 온 두 명의 무슬림 과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음으로 만난 무슬림들이다. 그들은 영어를 별로 못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웃음뿐이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청년과 고등학교 시절 동안 두 가지 매우 깊은 관심사를 개발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이다. 언젠가 난민들과 함께 일하거나 영어를 제2언어로 가르칠 생각으로 루이스앤클라크 대학교에서 외국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자랐던 곳에서 10분만 떨어져 있는) 온 여자와 29세의 일본인 여학생 (교환 학생)과 함께 기숙사 방으로 이사하였다. 그때는 열 일곱 살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활동들에 참여하려고 했었다. 관심사에 따라 기독교인 학생 그룹과 미국인을 외국 유학생들과 연결하여 영어를 연습하는 대화 그룹인 두 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 첫 학기에 기독교 학생 그룹을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몇 명은 아주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은 과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매주 “개인 간증”을 듣고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모였다. 우리는 매주 포틀랜드 지역의 다양한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는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다. 마지막 교회 방문은 나를 놀라게 해서 기독교 단체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그만 두었다. 이 교회에는 일렉트릭 기타가 있는 록 밴드가 있었고 사람들은 공중에서 손을 흔들며 노래 할렐루야를 불렀다. 지금도 TV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사랑했고 계속 가고 있었다. 분위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기에 나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조용한 곳과 야외에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고 느껴서 캠퍼스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후드 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나무들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둥근 건물인 캠퍼스 예배당으로 걷고 있었다. 그곳은 아름답고 소박하였다. 좌석들은 방 중앙 주위에서 원을 형성하고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천장의 가운데에 매달려 있었다. 제단도, 십자가도, 동상도 즉 아무것도 없었다. 간단한 나무 벤치와 파이프 오르간만이 있었다. 그 해의 나머지 동안 나는 이 건물에서 오르간 연주자의 연습을 듣거나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거기에서 내가 가본 어떤 교회에서보다 더 편안하고 하나님께도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또한 대화 그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학생 그룹과 만나고 있었다. 우리 그룹에는 5명이 있었다: 나, 일본 남자와 여자, 이탈리아 남자와 팔레스타인 남자. 영어 대화 능력을 연습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두 번 점심 식사를 하였다. 우리는 가족, 공부, 어린 시절,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팔레스타인인 Faris(파리스)의 생애, 가족, 신앙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다른 무슬림인 셰리프, 파티마, 메이순이 기억났다. 이전에는 그들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외국인으로서 이국적 문화로 보았으나 이슬람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록 내 삶을 위한 가능성으로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학기에 대화 그룹이 해체되고 유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토론은 생생하였다. 다음 학기에는 종교학과의 과목을 등록하였다: 이슬람 입문 이 수업은 내가 기독교에 대해 가졌던 모든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슬람에 대해 배웠을 때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우리 중

누구도 아담의 원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우리의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길을 고쳐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다른 모든 예언자들처럼 같은 메시지를 가르친 예언자었다: 참된 유일신을 믿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복종하는 것과 그분의 지침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 메시지들이었다. 그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나의 모든 질문에 답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정의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을 주거나 처벌하는 완벽하고 공정한 판사이시다.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과 지성에 호소하는 가르침을 찾은 것이었다. 자연스러워 보였고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여름, 나는 Bay(베이)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슬람 연구를 계속하였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나만큼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동방의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여자로서, 자유민주적인 캘리포니아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슬람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다. 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사는 지역의 이슬람 센터를 찾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나는 거기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혼자서 연구하였다. 말할 때가 왔을 때 가족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모두 에스키모에 관한 TV 방송을 본 것을 기억한다. 에스키모들족은 눈이 그들의 삶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200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고 하였다. 그 날 밤 후 우리는 언어에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는 미국인들이 “돈"(돈, 반죽, 빵 등) 대신 사용하는 모든 단어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는 “무슬림은 하나님의 이름을 99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여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 왔다. 내가 한 첫 번째 일은 포틀랜드 남서부의 성원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화할 수 있는 여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성원에서는 한 미국인 무슬림 자매의 전화번호를 내게 주었다. 그 주에 나는 집에서 그녀를 방문하였다. 잠시동안 이야기를 한 후 그녀는 내가 이미 믿음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무슬림이라는 의미의 실용성을 안내해 줄 여성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예배하는 법에 대한 안내. 나는 책에서 예배하는 법에 대해 읽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 하였다.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영어로 예배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아키카 식사(신생아를 위한 저녁 식사)로 나를 초대하였다. 그녀는 그날 밤 나를 차 태우고 같이 갔다. 나는 그곳의 무슬림 자매들과 같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꼈으며 그녀들은 그날 밤 나에게 매우 친절하였다. 나는 몇 명의 자매들이 보는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녀들은 나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그들의 대부분이 나처럼 미국인이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그날 밤을 넘어갔다.

나는 아직도 캠퍼스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이슬람 공동체와는 꽤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성원이 있던 지역에 도착하기 위하여 2대의 버스를 타야 하였다. 나는 만난 여자들과 금방 연락이 끊겼고, 학교에서 내 신앙을 스스로 추구하도록 남겨졌다. 나는 성원에 가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회의 시간을 헷갈렸으며 건물 전체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시간에 나는 나의 첫 주마(금요일) 합동 예배에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같은 이유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낙담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

신앙을 고백한 6개월 후, 나는 나의 첫 번째 라마단을 지켜보았다. 나는 히잡 착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단계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나는 이미 더 수수한 옷차림을 하기 시작했고, 보통 어깨 위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그 자매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그 스카프를 어깨에서 머리로 옮기기만 하면

이슬람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이에요." 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히잡을 착용하지 못 하는 것이었다. 나는 히잡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했고 그것을 착용한 여성들에게 감탄했고 그녀들은 매우 경건하고 고상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쓰면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이 그 문제를 다룰 준비도 되지 않고 충분히 강한 것도 아니었다.

이 상황은 라마단이 다가옴에 따라 바뀌었고 라마단의 첫날에 일어나서 히잡을 쓰고 수업에 갔다. 나는 이후로 히잡을 벗은 적이 없는데 라마단에 대한 무언가가 내가 무슬림임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첫 라마단 기간 동안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무슬림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서 식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야 하였다. 학교는 나에게 급식을 봉지 도시락으로 주겠다고 동의하였다. 그래서 매일 밤 해가 지는 대로 길을 건너 부엌까지 걸어가고 가방을 기숙사 방으로 가져 와서 식사를 혼자 하였다. 음식은 항상 같았다. 대부분 요고르트, 과일, 쿠키, 참치 또는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였다. 나는 외로웠지만 이 시간은 처음으로 혼자서 평화로웠던 시간들이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가족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내 행동과 내가 그 여름에 집에 있을 때 내가 한 말들로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어서 내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전에도 가족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활동과 깊은 믿음을 항상 받아 들였다. 그러나 내가 히잡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정도로 개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사회에서 멀어지면서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였고 내가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신경쓰지

않았지만 이슬람이 외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더 속상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대화 그룹의 무슬림 팔레스타인인 Faris(파리스)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다. 우리는 점심 식사때와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내년 2학년이 지난 후, 신앙을 고백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여름에 결혼하였다. 우리 가족은 많이 당황하였다. 그들은 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으며, 목표를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인생을 망칠까봐 걱정하였다. 그들은 내 남편을 좋아했지만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그린 카드 사기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과 나는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싸웠고, 우리 관계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였다.

그 일들은 3년 전이었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파리스와 나는 오리건 주 코발리스로 이사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긴밀한 무슬림 공동체에 살고 있다. 나는 아동 발달 학위를 따고 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히잡에 대해 아무런 문제 없이 몇 가지 직업을 가졌다. 나는 여전히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인샤알라, 남편도 전기 공학 학위를 마쳤다.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파리스 부모님을 만났다. 나는 아직도 느리지만 내가 쓰는 언어 목록에 아랍어를 추가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내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슬람이 나에게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의 관계는 정상으로 돌아 왔으며 다음 달에 우리가 방문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샤알라. 되돌아보면 알라가 오늘 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느낌이다. 내가 이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퍼즐에 있는 모든 조각들이 맞았다.

알함두릴라히 랍빌알라민!(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이슬람: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자유를 주는 문...

카리마

나는 1991년 9월 20일에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무슬림이 되었다. 누군가가 5년 전에 나에게 “당신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무슬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그것을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나를 이슬람으로 이끈 요인들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던 3년의 긴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나의 모든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내 믿음 중 일부는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는 완전히 바뀌었다.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거의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이 나의 운명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날까지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를 준비키셨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 나는 내면의 평화를 구하고 갈망하는 또 영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었다. 나는 내 탐구에 답하고 나를 만족시킬 논리적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내 인생을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로서 계속하였다. 나는 강한 도덕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신성한 또는 영적인 길을 만나 본적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였으나 나에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죄와 죄책감을 주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아직 다른 종교에 대해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영적인 공허함을 메우고 다른 종교에 대해 깊이 배우기 위하여 종교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불행히도 그 당시 내 인생의 과도한 안락함은 그것을 방해하였다. 나는 서로 사랑하고 지원하는 가족들로 구성된 환경에서 살았고 친구도 많았다. 다녔던 대학교와 전공을 좋아하고 있었으며 성공적인 학생이었다. 나는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으나 이것은 나를 이슬람 연구를 하도록 격려하였기 때문이다.

셰르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내 안에 불꽃을 불태운 내 무슬림 친구 중 하나였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대학에 왔을 때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일은 물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즐거움의 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의 태도는 나에게 그의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그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같은 평화와 정신을 갖기를 바랐다.

아는 무슬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신앙과 내면의 평화에 대한 나의 열정도 커졌다. 이들의 온화한 태도는 이슬람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던 야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다음 나는 이므란(Imran)이라는 다른 무슬림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였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하며 독립적이며 평화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둘 다 미래에 결혼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이슬람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는 아직도 무슬림이 될 의도는 없었지만 미래에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의 종교로 훌륭한 무슬림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내 아이들이 그와 같이 친절하고 성실하고 평화로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에게 이슬람을 더 잘 배우는 동기가 되었다.

되돌아보면 평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내면의 평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면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학업 성취나 인간 관계로 메울 수 있는 공허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나는 이슬람에 대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일과 탐구라고 생각하였다. 이 접근법은 학업 생활에 대한 나의 이해에 적합했으며, 그것은 나의 통제 하에 있었다.

나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묘사하고 "이슬람에서의 여자"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읽었다.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히잡을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남성에 의해 부과된 억압의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내가 읽은 것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이슬람은 여성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반대로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우리가 이 세기에 얻은 대부분의 권리를 이미 8세기에 준 것이다. 소유주가 될 권리, 결혼 후 남편의 보호를 받고, 투표하고 이혼할 권리는 서양에서 금세기 초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그것들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나는 각 단계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슬람에서 왜 네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슬람은 모든 아내가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만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혀 네 명의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 그 수가 증가했을 때 혼자 남겨진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적용되었다. 동시에, 불륜 관계가방지되었고, 태어날 아이들의 혈통도 분명하였다. 이것은 나의 질문 중 하나일 뿐이며, 여성들이 이슬람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으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년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대체 교사로 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9년이었다. 그것은 이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슬람에 관해 읽은 많은 생각들이 매우 의미심장하였다. 그러나 나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나는 항상 종교를 한 지원이라고 여겼다. 맞는 것이었나? 종교가 전 세계에 많은 압력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 종교들 중 하나를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하는 것초자 이상하였다. 늘 무슬림이 여성에게 가하는 압력에 관한 라디오 뉴스를 듣게 되었다. 신문 또한 라디오 방송과 다르지 않았다. 그 공동체의 누군가와 결혼하면 여전히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다. 안전과 신뢰로 보낸 스물 네 살의 삶은 갑자기 역전되었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검은 색이나 흰색이 없었고 모든 것이 회색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내 의지를 저항하여 어딘가에 끌려간 것 같았다. 이므란(Imran)과 결혼하는 것은 지금 나의 소망보다도 좋다.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그만했더라면 페미니스트인 환경, 사회주의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느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였고 나는 단지 내 가족과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는 계속 읽고 있었다.

이제 이슬람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상황은 이제 나의 정체성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그때까지 나는 많은 성공적인 과제를 준비하였고 바른 연구를 하는 방법과 논문을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 성격은 결코 이 정도로 비관적인

때가 없었다. 내가 쓴 모든 논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됐지만 그것은 무서웠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찾고 있는 답변을 가지지 않았다. 이므란은 항상 나의 질문들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믿음에 감사하면서도 나의 두려움과 문제로 인해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매우 외로웠다. 또 무서워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 읽고 있었다.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찾은 후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다. 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와 꾸란을 읽기 시작했고 나의 초기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예언자 무하마드는 매우 뛰어난 지도자였다. 그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애정이 뛰어나고 지능적인 성격과 예지력을 갖춘 탁월한 리더였다. 그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과 겸손함으로 인하여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즐거움을 버리고 움마(이슬람 공동체)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나는 꾸란에 대해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는가? 그 외에도 꾸란은 꾸란을 공개한 예언자를 또한 인도했으며, 그를 특정 주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만약 꾸란을 예언자가 썼다면 이런 경고들이 있는 것이 가능했는가?

결국 꾸란으로 향하였다. 이것으로, 정신 활동으로서는 꾸란 인식이 감소하는 동안 내 자신과의 투쟁은 늘어나고 있었다. 이전에는 구절들의 모두를 부인했으며 항상 비반할 것과 이상하다고 간주할 만한 것을 찾음으로써 꾸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모든 구절들이 직접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수라의 끝 (꾸란, 2 : 286)에 나오는 구절은 나의 의심과 복잡한 감정에 대답하였다 :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

나는 어떤 구절들을 읽은 직후 알라를 믿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은 후에 마음에 짐이 내려진 것을 느꼈다.

이슬람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과 섞여 있는 감정이 계속하였다. 무슬림이 된 후에도 이전처럼 가족과 가까울 수 있을지는 잘 몰랐다. 나는 아직도 개방적일 수 있는 것이었는가? 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믿었고 그것이 가장 개방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고도 이슬람만큼 독단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나 한 이념을 받아드린 것이었는데 나는 받아들인 이념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더 많이 보호하고 지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2년 반안에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꾸란에서의 자연에 대한 설명에 매혹되었다. 꾸란의 지혜는 나의 의심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었다. 나는 예언자 무하마드의 대단한 삶을 배웠다. 이슬람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평등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만족하였다. 이슬람은 진정한 평등을 제공하며 그것은 남녀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인종과 사회 계급 사이에 있었다. 이 상황은 자신의 생각을 믿게 만들었다. 마침내 나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의 신을 믿는가?" 이것이 무슬림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었다. 이슬람의 규칙과 역사적 관점에서의 발생에 관한 내 머리속에 있는 질문들은 이제 답을 찾은

것이었는데 이 중요한 질문은 내가 대답을 찾아야 할 마지막 질문이었다.

내 자신을 더 큰 존재에게 항복할 수 있을까의 질문이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제쳐둘 수 있는지의 질문.

신앙을 고백하기로 두 번 결정했지만 다음날 결정이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놓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무슬림에게 본 것이었다. 나는 이런식으로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 어쩌면 나는 그때 이미 무슬림이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일어설 때, 내 마음은 아직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

몇 주 후에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신앙인이 아닌 채 날들이 빨리 지나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의 논리는 무함마드와 꾸란이 가져간 증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 순간 내 마음은 무슬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인생을 이성과 마음, 행동과 생각, 지적과 감정의 조합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살아온 것인데 이 현실을 이슬람에서 찾았다. 며칠 후 나는 신앙을 고백하였다. 알라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내 영혼과 마음의 자유의 문을 찾았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아슬람으로...

무사 살만

나는 1951년에 오리곤에서 태어났다. 우리 조상들은 1635년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우리는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가족 중 하나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곳으로 이주한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영국인인 우리 가족은 먼저 교회의 압력을 피해 이탈리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스페인으로 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 정착하였다. 이제 12세대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의 이주 이유인 종교는 미국인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법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인 주부였다. 우리는 여자 두 명과 남자 두 명으로 4남매였다. 부모님의 유일한 꿈은 우리 모두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이다.

대학 시절까지의 생활을 기독교 환경에서 보냈다. 나는 내 형제들 사이에서 독서에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나는 항상 삶에 의문을 품었다. 나는 그냥 이 종교를 상속받았을 뿐이지 진짜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몇 세기 동안 가족의 종교 생활이 계속 침식되는 것으로 영향을 받았다.

프린스턴에서 의대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들은 과목에서 정의된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인간은 기계와 같지 않았다. 나는 몸으로만 구성된 생물학적 장치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의학의 역사에 대해 읽게 되었다. 나는 미친 듯이 읽고 있었는데 동양에서의 인간 묘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불교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다른 존재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서로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설명되고 있었다. 인간은 영혼, 정신 및 신체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은 신체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차원은 무시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의학과를 그만 두었다.

내가 의사가 되기를 기대했던 우리 가족은 아직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인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누구였는나? 나는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은 후에 동양 종교들에 관한 작품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집에 상당히 큰 도서관을 만들어서 사상 역사, 의학의 역사, 종교 및 인간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 계속 추가해서 읽었다.

이 독서는 나를 불교로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불교에서의 인간의 이해와 모델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결국,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약하고 있었고 그 당시 평화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독서를 늘리고 불교 사람들을 만났다.

얼마 후 나는 불교인이 되었다. 나에게는 매우 다른 경험이 되었다. 이 종교에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다. 머리 속의 혼란이 해결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모든 버전의 불교를 배웠고 채식주의자가 되어 체육에 필요한 모든 운동을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호흡 운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한 달 동안 지속되는 느린 움직임과 호흡과 같은 행동이 포함한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무거운 불교 수련회를 시작하였다. 나는 완고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어려운 이 과정에서 성공하였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어서 내 마음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평화가 있기는 있었으나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 무엇인가가 빠졌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내가 찾던 것이 불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다시 찾기 시작하였다. 나는 책의 세계로 더 강렬하게 돌아왔다. 내가 찾던 대답이 그들 안에 있다고 느꼈다. 당시 나는 대학 생활로 돌아가서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대학에 한 강사가 있었는데 그는 무슬림이 아니었지만 강의실에서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교실에 오곤 했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입었던 것처럼 입는 것을 좋아했고 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입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나에게 꾸란을 읽어야 하며 내가 찾던 답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꾸란의 영어 번역을 선물해주었다.

나와 같은 책벌레의 경우 꾸란을 읽는 것이 몇 초 밖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않았다. 나는 모든 줄을 몇 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꾸란은 쉬운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나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과 같았다. 나는 인생 처음으로 한 책에 이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슬람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슬람에는 내가 찾던 모든 것이 있었으나 나는 아직 무슬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슬림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만난 첫 무슬림들은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믿음의 면에서 너무 달랐다. 나는 무슬림의 대화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은 터키에서 온 “murshid”(무르쉬드, 멘토, 종교적 안내자)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그는 우리 도시도 방문할 것이었으며 친구들이 그를 회의에 초대하였다.

나는 그 장소의 입구 문 앞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갑자기 눈을 맞추게 되었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스캐너로 스캔된 느낌이 들었고 그가 마치

눈빛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첫눈에 누구의 영향을 이 만큼 많이 받은 것이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자석처럼 나를 끌고 있었다. 대화는 때때로 아랍어로 때로는 터키어로 이루어졌다. 나는 두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도움이 되고 있었다. 사용된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고 항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나는 아직 무슬림이 아니었으나 기도와 디크르 (알라를 기억하는 것) 서클에 합류하여 그들을 관찰하였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다. 불교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찾았다. 행동, 지식 및 마음은 모두 함께 하였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무슬림이 되는 것을 막는 제동 장치가 있었으나 나는 이미 이 종교가 옳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고 그 멘토를 보았을 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금요일 합동 예배가 있는 날이었다. 예배 후에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나는 일어 서서 그 공동체와 알라 앞에서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맘으로 가서 샤하다(신앙 고백)를 발언하였다. 나는 다른 존재 차원으로 옮겨졌다고 느꼈고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80년이었고 나는 29살이었다. 나는 무슬림이 된 것에 대해 행복했지만 그동안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고 슬펐다.

나는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계속하였고 라마단 달동안 단식하였다. 나는 또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내를 개종하기 전에 만났고, 우리는 동시에 무슬림이 되고 결혼하였다. 그녀도 나처럼 무엇을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또한 이슬람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우리는 이슬람의 고향을 보기 위하여 아랍 국가로 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무른 후 터키를 방문하였다. 이슬람은 터키에서 다르게 실천되고 있었다. 더 세계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이해를

발전시킨 나라였다. 특히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은 풍부하고 다양하였다. 사실, 나는 이슬람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터키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제 9명의 무슬림 가족이다. 우리는 이러한 날들을 보게 해 주신 알라에게 감사드린다. 기독교를 살 수 없다는 이유로 1635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의 자녀는 언젠가 이슬람교를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터키로 이주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먼저 꾸란을 읽고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수프 이슬람 (캣 스티븐스)

내가 말할 것은 이미 너희도 알고 있는 알라의 의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된 참된 종교의 메시지일 뿐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창조의 최상위에 두는 의식과 의무가 주어지었다. 모든 환상을 없애고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 꾸란에서, 사람이 심판될 날에 "오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할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보내면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현대 세계의 모든 사치와 쇼 비지니스의 화려한 생활 속에서 자랐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모든 아이가 원래 본성으로(무슬림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그를 다른 종교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종교도(기독교) 나에게 부모에 의해 주어졌으며 그것에 따라 내 생각이 형성된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졌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분과 접촉해야 했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에게로 열리는 문이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전부에 속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상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더욱 당황했지만 논쟁할 수는 없었다. 부모님의 믿음을 존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믿었다. 그리고 점차 이 종교적 양육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큰 대스타가 되고 싶었다. 영화와 미디어에서 본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았으며 아마도 이것이 돈을 버는 목표인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차를 가지고 있는 삼촌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섬기고 이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완벽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런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제 나의 보기들은 팝 스타들이었다. 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인류에 대한 느낌이 있었으며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꾸란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을 붙잡고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 후에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나는 여전히 십대였고, 모든 언론에 내 이름과 사진이 뿌려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전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도 전설적으로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에 취하는 것이었다(술과 마약).

1년간의 재정적인 성공과 '화려한 삶' 후 나는 아프게 되었는데 결핵에 걸려서 입원해야 하였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단지 육체였고, 인생에서 나의 목표는 단지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나? 나는 이 재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내 눈을 뜨게 만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내가 왜 침대에 있니?" 라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는 동양 신비주의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영혼이었다. 나는 행복과 높은 성취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명상을

시작했고 채식주의자까지 되었다. 나는 이제 대세였던 "평화와 꽃의 힘"을 믿었다. 그러나 내가 특히 믿었던 것은 내가 단지 몸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이 인식은 나에게 병원에서 왔다.

어느 날 산책을 할 때 비가 와서 대피소로 달려 가기 시작하고 이것을 깨달았다: "잠시 내 몸이 젖어 있고, 몸이 나에게 몸이 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몸이 당나귀와 같다는 말을 생각하게 했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이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당나귀가 당신을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의지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나는 동양 종교에서 배운 새로운 용어에 매료되었다. 이제 나에게는 기독교가 식상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내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내 노래 중 하나의 가사를 기억하는데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을 만드는 것과 지옥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큰 호텔에 도착하는 동안 내 침대나 먼지가 많은 방에서 당신을 알게 됩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또 다른 노래인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작사했는데 이것으로 음악 세계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나는 부유해지고 유명해져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동시에 아직도 진심으로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런 다음 불교가 괜찮고 고귀하다고 결정한 과정에 이르렀지만 이런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스님이 되어 사회에서 멀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선불교[1], 수비학, 타로 카드 및 *점성술을 시도하였다.

나는 성경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그것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이때 나는 이슬람에 대해 하나도 알지

1 선불교 : 명상 분파로 알려진 일본 불교 학교.
*점성술 : 별의 빛이나 위치, 운행 따위를 보고 사람의 운명, 계절과 사건들에 대한 점술

못했고 기적이라고 생각한 일이 일어났다. 내 동생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빈 교회와 회당과는 달리 삶에 활기가 넘치는데다가 평화와 평온의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가 런던에 왔을 때, 꾸란의 번역본을 가져와서 나에게 주었다. 그는 무슬림이 되지 않았지만 이 종교에서 무언가를 느꼈으며, 또 그는 나도 그 종교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누구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현실은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지침이 된 이 책을 받았을 때 서양인이 이해하는 의미와 다르고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것이 참된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일한 생활 방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광신자로 여겨진다. 나는 광신자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몸과 영혼 사이에서 혼동되었다. 그리고 나는 몸과 영혼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산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일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잠이 추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내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가 이슬람으로 알고 있는 완성된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나의 믿음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내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느꼈다. 꾸란을 읽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서로 달랐을까? 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바꾸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이것은 당신에게 태양과 달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숭배하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꾸란의 아름다움이다. 꾸란은 사람에게 태양과 달,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다.

당신은 태양이 달과 얼마나 다른지 아는가? 그것들은 지구와 거리가 멀지만 우리와 같은 크기로 보인다. 때때로, 하나는 다른 것과 겹치는 것 같이 보인다. 많은 우주인들까지 우주로 갈 때 지구의 중요하지 않은 크기와 우주의 광대함을 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시를 보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로 한다. 꾸란을 더 읽으면서 예배, 친절, 자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직 무슬림이 아니었지만, 나에게 유일한 답은 꾸란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보내셨고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꾸란은 다양한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다. 나는 꾸란이 "불신자들과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무슬림들은 형제이다."라고 말하는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나는 무슬림 형제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런 다음 나는 동생이 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성원에 가서 앉았다. 한 남자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에게 내가 무슬림이라고 하였다. 그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나는 그에게 "스티븐스"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당황하였다.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예배에 참여하였다.런던으로 돌아가서 나는 Nafisa(나피사)라는 자매를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나를 뉴리젠트 성원을 안내하였다. 이 일은 꾸란을 받은 후 약 1년 반이 지난 1977년이었다. 이제 나는 자존심을 벗어나고 사탄을 처리하고 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요일 합동 예배가 끝난 후, 나는 이맘 (예배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믿음(샤하다)을 선언하였다.

그대들 앞에 명과 부를 얻었던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러나 꾸란이 나에게 보일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지침은 나를 피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힌두교 여성이 내게 말했듯이 "남들은 힌두교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의 신을 믿고 이 물체(우상)를 사용하여 단지 집중하기만 해요." 라고 했었다. 그녀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하여 우상인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한다. 사람을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꾸는 유일한 것은 살라(예배)이다. 이것은 순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동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경험에서 영감을 얻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슬림과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먼저 꾸란을 읽고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슬람은 완벽하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행동을 실행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함마드의 움마 (이슬람 공동체)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그분에게 깃들기를 바란다. 아민!

... "나는 왜 여기에 있어?" "나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어디에 갈 것이야?" ...

로베르트

1964년에 런던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노동 계급 출신이었지만 어머니는 가톨릭이고 아버지는 잉글랜드 성공회 출신이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만 교회에 가고 있었으며 삼촌의 결혼식을 위하여 나를 한 번 데려갔다. 아버지는 내가 열 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였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자랐는데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 그녀는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을 이해하기 위한 의견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중학교 때 종교에 관해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정보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이슬람에 관해 몇 가지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예배하러 성원에 갔을 때 신발을 벗는 것 등이다.

종교를 바꾸기 전에는 주말에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젊은 여자들과 만나곤 했다.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여자 친구 한 명이 있었으나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인생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었다. 어쩌면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놀고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 무엇이 빠졌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제는 무엇이 빠진 것인지 알고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별과 태양에 대해 생각하곤 했었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창조되었나? 물론 항상 혼란스러워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나는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다. 예를 들어, 시크교도와 힌두교도의 차이를 물었다면[1] 나는 몰랐을 것이다. 종교는 단지 종교였고 나는 구별할 수 없었다. 그것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였다.

종교와의 첫 만남은 아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아내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런던 기차역이었는데 그 날 친구 중 한 명이 여자 친구를 역으로 데려가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차가 있는 거리는 "런던 마라톤"으로 폐쇄되었으므로 차를 꺼낼 수 없었다. 내 차는 길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는 내가 역에 데려다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 우리가 빅토리아 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를 마시러 식당에 갔다. 그 당시에는 모든 곳에서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나는 식당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 앞에는 자신의 짐이 아닌 것 같았던 캐리어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캐리어인지를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 서로를 계속 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고 때때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다. 나는 이전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그때 나는 어떤 종교에도

1 시크교 : 16세기 인도의 Guru Nanak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슬람과 힌두교의 조합이다. 거룩한 신을 믿는다. 그러나 힌두교처럼 신은 화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몇 권의 책을 주고 싶어하였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말했었다. 사실 그녀는 나를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이슬람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첫 만남 후 두 달만에 결혼하였다.

결혼한 후 그녀는 나에게 종교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나 항상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에서도 말했 듯이,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경배를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경배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이슬람을 믿는다.)

내가 무슬림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무슬림 국가 요르단을 방문한 것이었다. 아내는 그녀의 삼촌을 만나고 싶어하였다. 그녀는 단지 요르단에 삼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레바논에 있는 여동생에게, 삼촌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기회에 우리는 1998년 6월에 요르단으로 갔다. 그녀의 삼촌이 나를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조카의 남편이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그들은 이슬람에 관해 많은 것을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무관심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그들의 생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또한 그곳에서 한 만난 팔레스타인 지식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슬람과 다른 많은 종교와 이념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다른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결함에 대해 매우 합리적으로 말했고 이슬람만이 참된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것을 강조하였다.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슬림을 보면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영향과 팔레스타인의 지성에 대해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하였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거야?” 팔레스타인 지식인은 이전에는 나에게 아무도 묻지 않은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종교적 무슬림을 만났지만 그들은 자신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창조자가 있어야 하며 이 세속적이고 제한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5주 동안 요르단에 머물렀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나를 설득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이슬람교도가 되게 했고, 나는 그곳에서 샤하다를 읊어 스물네 살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무슬림이 된 후, 나는 많은 새로운 규칙과 금지를 내 삶에 가져 왔다. 나는 새로운 습관을 갖고 내 습관 중 일부를 남겨두고 갔지만 너무 행복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알라가 원하는 대로 삶을 변화시키고 살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나는 즉시 음주, 도박 및 기타 나쁜 습관을 끊었다. 예배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6주 후에 매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요르단을 떠날 때 그들은 런던에서 무슬림들을 만나라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런던으로 돌아 갔을 때 나는 아주 좋은 형제들을 만났다. 몇 주 후, 아내는 나를 위하여 무슬림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가 내가 무슬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내가 요르단에서 세뇌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이 일시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6 ~ 7주 안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이슬람의 진지함과 내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진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내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처음에 무슬림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녀와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았다.

우리는 지금 훌륭한 모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 친구들도 충격을 받았으며 갑자기 그들과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당신은 이제 무슬림이고 외출하거나 우리와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였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바뀌었고 몇 주 후에 그들은 나를 만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또한 그들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였다. 나는 2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를 보지 못하였다. 내가 무슬림이 되어서 그는 나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인 영국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그들은 사회적 영향과 언론의 영향으로 이슬람을 거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언론은 이슬람을 왜곡된 방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국인들이 무슬림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2년간 일해 왔으며, 첫 6개월 동안 나의 개종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먼저 개인으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첫 만남에서 내가 무슬림이라고 말하였더라면 그들은 그 순간 나와의 관계를 끊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들 대부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나는 그들이 나의 종교에 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보통 Salman Rushdie와 걸프 전쟁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나는 이슬람을 예배, 단식, 하지(성지순례)로 구성된 종교 일뿐만 아니라 세계관으로 본다. 이슬람은 개인의 행동과 인생 전체를 둘러싼다. 나에게 예배는 기본 의무이다. 가끔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예배를 한다. 그것은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예배하면서 마음 속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예배를 계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이슬람에서는 우리들의 좋은 의도까지 선행에 포함한다...

켄네스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일부를 할머니와 함께 보냈다. 사실, 그녀가 나를 키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오순절[1] 교회의 매우 보수적인 회원이었다. 교회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영향으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아직 여섯 살이었을 때 하늘과 지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거짓말쟁이들이 불지옥에서 불에 탈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머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풀 타임 집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만났을 때, 할머니는 내가 그녀의 가르침을 되풀이하게 하고 항상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녀의 경고들에 나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달을 보고 울기 시작하였는데 보름달이었고 붉은색이었다. 나는 그것이 종말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달은 종말의 피처럼 빨갛게 될 것이다.) 무서웠다.여덟 살 때 그런 두려움이 더 커졌다. 나는 심판의 날과 종말에 대해 계속 꿈꿔왔다. 우리 집은 철도와 매우 가까워서

1 오순절주의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개신교 운동이다. 그 이름은 부활절 50 날 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린 것을 축하하는 오순절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기차가 자주 지나곤 했었다. 나는 기차의 엄청난 소음을 들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에 깨어 죽은 줄 알았다. 나는 Israfil(이스라필)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의 날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종교에 관한 이 모든 정보는 구두 대화와 성서의 이야기를 근거로 쓰여진 책에서 염두에 두었던 정신세계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곤 했었다. 할아버지는 운전사처럼 우리를 차로 데려다 주곤 했었다. 때때로 나는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결코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다. 우리가 오전 11시에 교회에 가고 오후 3시에 떠나곤 했었다. 나는 가끔 할머니의 무릎에 졸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때때로 우리는 주일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남동생과 함께 아침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지나가는 열차를 보곤 했었다. 그는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격려하기는 했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뇌졸증을 겪었고 우리의 교회 방문은 중단되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였다.

열 여섯 살 때 친구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성직자인 교회에 갔다. 적은 수의 사람만이 동시에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상점 입구에 지어진 작은 교회였다. 나는 이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몇 달 동안 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시작한 후 다시 한 번 종교적 의무를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오순절 교회의 가르침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내가 대학생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게 되어 기뻤다.

나는 교회의 문이 열렸을 때 첫째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여러 날과 주동안 성경을 읽었다. 나는 기독교 학자들의 수업을 듣고 스무 살이 되자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나의 교회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독단적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들을 모두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같다고 믿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의 삼위 일체를 믿지 않았다. 예수는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성령이셨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까지 이것에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종교적인 옷을 입는 남녀들에게 감탄하고 있는데 나는 자신을 완전히 덮는 여자들을 예수의 사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크업을 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성들도 보고 있었다. 나는 자신감이 너무 많았다. 나의 성서 지식을 어느 교회의 어떤 성직자와 비교해 보았으며, 토론이 있다면 토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성서에서 수백 개의 구절을 외운 것이었는데 이것은 나의 차이였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의 일부는 진리를 계속 탐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 분께 간구하고 었었다. 나는 그때까지 무슬림을 만난 적이 없었다. 누군가 이슬람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흑인 무슬림 지도자인 일라이저 무하마드가 떠오르곤 했었다. 70년대 말에 루이스 파라칸 (Louis Farakhan)은 이 그룹을 새롭게 만들고 "The Nation of Islam"이라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연설 중 하나를 들었는데 그가 말한 방식과 말한 내용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에게 즉시 말하고 그런 사람을 나의 종교에 데려 오려고 노력해야 하였다.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나는 영혼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교회에서 풀 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설교 측면에서 최고였다. 일라이저

무하마드의 지지자들은 이제 숨기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그들이 제시한 노력에 감탄하였다. 나는 그들의 출판물을 사고 그들의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연구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그들이 성경을 자신의 이익으로 잘못 해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와중에 나는 텍사스로 이사하였는데 6개월 후 두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한 교회의 성직자는 매우 어리고 경험이 없고 지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기록된 기독교 자료에 대한 나의 지식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었고 성경에 집착하는 독자와 연구원이 되었다. 나는 고대 저술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 교회의 당시 지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다른 도시의 교회에 갔다. 여기의 성직자는 지식이 많았다. 그는 훌륭한 교육 기술과 교회 조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자유로운 가르침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나는 여기에서 “빛나는 모든 것은 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은 내 인생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였다. 나는 내 안에 변화가 있었고 악마들이 내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나는 내가 헌신한 아이디어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성직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나는 몸을 완전히 덮은 여성들이 너무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성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입는 옷도 환영한 것이었다. 교회 활동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욕심쟁이가 된 것이었다. 나는 참석자가 적은 교회에 가지 않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사람의 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계속 설교하고 아무런 급여도 받지 않았다. 나는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내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힘과 권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경 연구원으로서, 내 양심은 이러한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성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승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나는 이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일부 사제들은 이 문제를 자신들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었다. 전환이 필요하였다. 내가 있었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였다. 이 변화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한 일을 수락했을 때 일어났다.

그곳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본 것은 무슬림들이 일라이저 무하마드와 파라칸의 지지자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종교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생애를 처음 읽었을 때 매우 감동했고 그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다. 나는 이슬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이슬람에 관한 다양한 책을 받았고 모두를 읽었다. 사 개월 만에 꾸란을 여러 차례 마쳤다. 머리 속에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데 즉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의 지식으로 눈에 띄려고 노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떤 질문들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한다면 답변을 아는 사람과 상담하고 답을 그쪽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었다. 중동 사람들의 겸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가리는 여성들의 이미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곳에는 종교적 계층이 없었다. 아무도 종교 관련 직책을 가질 욕심으로 싸우지 않고 있었다. 모든 것이 훌륭하였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받아들인 것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떻게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받게 되었다. 안에는 Ahmed Deedat와 Jimmy Swaggart 사이에 진행된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Ahmed Deedat에게, 그것을 보고 바로 무슬림이 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셰이크 압둘아지즈 빈 바즈의 사무실로 가서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의 조언을 했는데 이것이 긴 길이라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안의 빛으로의 전환이 있다고 느껴졌다. 교회 공동체의 친구들이 내가 무슬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였다. 나는 짧은 여행을 위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를 보았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슬림이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변절자나 죄인과 같은 많은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내 안에 있었던 문제는 이제 끝났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해준 전능하신 알라에게 감사했고, 그 이상의 것은 개의치 않았다.

나는 이슬람에는 기독교보다 더 헌신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무슬림으로 키워진 사람들 만큼 배울 필요가 있었다. 결국,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꾸란 선생님은 나에게 사히흐 알 무슬림(Sahih al-Muslim) 하디스 컬렉션을 선물하였다. 나는 예언자 무하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과 그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나는 찾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된 모든 하디스 책을 읽었다. 인생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온 것이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 우리의 좋은 의도는 이슬람에서 선행인 것이었다. 즉 의도한 바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달랐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한 행동과 진심인 의도가 있는 길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만일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특히 간음과 같은 큰 죄), 당신이 제사장에게 고백하지 않는 한 하늘의 문은 당신에게 닫혀 있을 것이었다.

나는 메디나에서 한 신문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들은 나의 일일 계획과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에 대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종교 비교에 관한 작품을 쓰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수업을 해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모든 무슬림의 의무는 가능한 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헌신했던 한 남자는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성경 안에 있는 실수와 모순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행히도, 신권 시절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성경의 옹호자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 중 하나가 질문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보자.

예배에서 알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그 분의 인도를 구한다. 모든 찬양은 그 분께 있다. 알라의 자비가 그의 마지막 예언자 무하마드와 그의 가족 그리고 움마(이슬람 공동체) 전체에게 깃들기를 바란다.

...내가 읽은 한 책은 나의 원래 믿음이 사실 이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었다...

그레이스

나는 런던에서 태어났고 태어난지 며칠 되었을 때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고 입양보냈다고 한다. 나를 키운 사람들을 부모님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아직 찾지 못하였다. 우리는 집에서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하여서만 교회에 가곤 했었다. 나는 "침례를 받았을 것이야."라고 생각고 있었다. 나는 인생에서 두 번만 교회에 갔는데 그것들도 결혼식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나는 또한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기억도 없다.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고 부모님을 모른다는 것은 나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초래하였다. 나를 입양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나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왜 내가 녹색 눈과 갈색 머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나의 의심스러운 태도는 나중에도 계속되었다. 나는 열 여섯 살 때 학교를 떠나고 열 일곱 살 때 이탈리아에 살기 시작하였다. 나는 불행했고 집에서 멀리 가고 싶었다. 나는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들도 인해 바빠지고 싶었다. 처음에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거기에 갔는데 그곳에 계속 머물고 이탈리아에서 8년을 보냈다.

나는 혼자였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동시에 많은 경험을 얻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여행 가이드로 일하였는데 사람들이 교회, 바티칸, 성 베드로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나는 이 교회들의 역사를 잘 배운 것이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이자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종교인들을 크게 존중하고 있었다. 또한 이 장소들도 존중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곳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나는 기독교의 어떤 종파에도 가깝다고 느끼지 못하였다.

창조주를 믿기는 믿었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유일함과 운명을 믿으며 내 인생이 그분의 뜻에 따라 형성된다고 믿고 있다. 그분이 원하지 않을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지와 선택할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잘못된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나의 실수이다. 나는 심판의 날에 나의 행동에 대해 심판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나의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누구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한 적은 없다.

삶의 의미를 찾거나 나에게 빠진 것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종교를 찾는 것도 아니었다. 인생의 여러 기간 동안 다양한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였다. 때로는 더 만족하고 때로는 덜 만족하였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애매성, 문제 및 결점은 이슬람으로 사라졌다. 이제 내 인생은 방향을 잡은 것이었다. 필요할 때 상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은 것이었다. 꾸란은 나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주는 것이었다. 이 규칙들을 항상 100 %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면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것이 이슬람을 충분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을 알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비해 더 많은 규정, 규칙 및 금지가 있다. 이슬람은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안내한다. 그것들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의 삶에 명확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내가 이슬람을 처음 발견했을 때, 주변에는 무슬림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책에서 얻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다. 실천으로 종교적 생활을 배우는 것은 3년이 걸렸다. 이 시간 동안 내 생각과 습관을 고쳤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처음 접촉한 것은 이슬람이 아니라 아랍인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후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로 일자리를 찾았다. 이곳을 방문한 아랍인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들을 무슬림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단지 아랍인일 뿐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것이 지루해졌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중국어 또는 아랍어를 선택할 것이었다. 나는 많은 아랍인을 알고 배운 대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선택하였다. 나는 아랍어 문법 책, 아랍어로 쓰여진 책과 이슬람의 기본을 설명하는 책을 샀다. 이슬람에 관한 간단한 책이었지만 이슬람은 신앙과 생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유일하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신에 대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무슬림 여자 두 명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별로 종교에 따라 살지도 않고 술도 마시고 남자 친구도 있었다. 그녀들은 이 책에 묘사된 초상화와는 달랐다. 그러나 나는 다른 무슬림을 아는 것도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이상적인 무슬림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위하여 마음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꾸란을 읽을 때 진짜로 충격을 받았다. 꾸란은 완벽하였다. 나는 히잡의 주제를 포함한 거기에 쓰여진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많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친구들에 대항하여 이슬람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입양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를 봤을 때 나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서양에서는 아이가 입양될 때 새 가족의 양육권 하에 있으며, 그들의 이름을 받아 부모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가족이 자녀의 실제 부모가 되지 않고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입양아는 자녀 중 하나가 아니라 집의 손님과 같기 때문에 자기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였으며,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

얼마 후 나에게 다른 일들이 생겨났고 이슬람과 아랍어에 대한 학습은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아일랜드인 남자와 결혼하였는데 완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나는 4개월 후에 그를 떠났다. 이 짧은 기간의 충격으로 인해 내 생활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님을 깨닫게 만들었다. 나는 영국에서 망가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 적절하고 –아마 더 "이슬람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약 6개월 후, 나는 이슬람에 대해 읽고 무슬림 친구들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 주위에 이슬람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더 많은 책을 찾아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꾸란을 원래 언어로 읽으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꾸란을 읽는 것은 나에게 정말 힘들었다. 이제는 아는 지식이 많아서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 않다. 나는 매일 그것에 더 관심이 생겼고 더 많은 것을 읽고 무슬림이 되고 싶었다. 나에게 무슬림이 되는 것은 특권을 받는 것과 같았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무슬림이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무슬림이 되기 위하여 아랍인으로 또는 무슬림 가족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무슬림들은 적절한 이슬람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이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인생을 무슬림이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내 삶을 그것들에 따라 형성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이슬람에 따라 바꾸고 무슬림이 되는 것은 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침에 예배하기 시작했고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꾸란을 읽고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런 다음 살라(예배)에 관한 책을 받았고 단계적으로 예배를 수행하는 법을 배웠다.

그 기간동안 사우디 친구 하나를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결혼했고 남편도 무슬림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나는 누군가가 종교를 바꾸고 무슬림이 되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가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나중에 무슬림이 되는 것이 가능해?" 라고 물었는데 그녀는 "응, 남편은 나보다도 좋은 무슬림이야." 라고 답하였다. 나는 들은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나도 무슬림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물었다. "물론, 성원에 가면 돼." 라고 그녀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너는 매일 예배해?" 라고 묻자 "응, 나는 하루에 한두 번 한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지 않아도 돼?" 라고 물어보자 그는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감명을 받고 행복하였다. 머릿속에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일할 때 예배할 수 없었다. 그리고 히잡을 착용하고 어떻게 일하러 갈 수 있는 것인가? 제대로 따르고 싶은 규칙이 많았지만 그 규칙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 런던 센트럴 성원에 전화하고 거기에 갔는데 이맘은 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하여 내게 책을 주었다. 그는 책을 읽음으로써 시작하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이맘은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였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다. 무슬림이 되는 것은 특권이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는 "당신은 이제 무슬림이고 무슬림처럼 살아 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여권과 다른 서류에 이것을 써야 합니까? 내가 무슬림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니요, 무슬림이 되고 싶다면 무슬림입니다. 서류를 원한다면 줄게요." 라고 하였다.

무슬림처럼 사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내 머릿속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힘들어 보였고 나에게 모범을 보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이라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처음에는 힘들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예배를 시작한 후 나는 매일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슬림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알라의 인도를 의미한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는 한 따라야 할 지침이다. 무슬림이 되는 것은 꾸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종교적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슬람에 관한 책을 읽은 후 나는 그것이 나의 믿음과 겹치는 것을 보았다. 그 결과 나는 "이슬람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무슬림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알라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생활 방식이다. 불교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었다면 "불교인이 될까요?"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불교가 알라에 대한 그런 대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옛날에 처한 상황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읽은 한 책은 나의 원래 믿음이 사실 이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인생 처음으로 알라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느껴졌다...

압두스 살람

나는 매우 부패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항상 어머니, 나, 그리고 동생들을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혔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나를 폭력에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반 사회적 행동 장애가 있었다. 나는 사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었고, 나는 가족에게의 애정 부족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내 주변을 파괴하고 있었다.

내가 겪었던 괴롭힘과 폭력을 모방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나의 모든 잠재 의식은 이미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아직 세상의 다른 생활 양식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었다. 항상 동생들, 반 친구들 및 교사들과 싸우고 있었다. 심지어 동물을 고문하는 것까지 즐기고 있었다. 분노를 쏟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이었다.

열세 살 때 나 같은 아이들이 가는 "변화 학교"로 보내졌다. 동갑인 아이들이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고, 나는 성인들이 가는 다른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음주, 마약, 폭력 및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감옥같은 학교에서 나는 좋은 쪽으로 향하는 대신 더 나빠졌다. 나의 분노는

날마다 커져갔다. 폭력과 인종 차별에 대한 나의 경향은 다섯 배가 되었다. 나에게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으로는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다른 반 사회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여기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있었다. 흑인, 유대인, 아시아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 삼 년 동안 머문 후 사회에 풀려났다. 나는 마치 걷는 수류탄과 같았다.

분노를 쏟을 곳을 찾고 있었다.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 인종 차별 그룹에 합류하였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열 여섯 살 때, 캘리포니아 청소년 법원에서 도난, 폭행, 총기 소지와 같은 범죄로 육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백인 우월주의"라는 갱에 합류하였다. 비앙글로 색슨족에 대한 나의 분노는 급속히 커졌다.

몇 년 후, 나는 감옥에서 가석방되었다. 석방되자마자 KKK(Ku Klux Klan)에 합류하였다. 나의 활동은 이제 더욱 전문적이고 심각해졌다. 우리는 집을 불 태워 사람들을 해쳤고 나는 또 다시 도둑질과 무기 소지로 잡혔는데 가석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를 위한 나의 탐구의 시작이었다. 스무 살이었다. 나는 몇 년 동안 분노와 격로를 내 안에서 쌓음으로써 이 감정들이 강렬해졌고 나는 속으로 깊이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화를 내기 위하여 감옥 직원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 감방의 벽에는 내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는 구호와 문구가 가득하였다. 비슷한 말들을 내 몸에 있는 문신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바깥 쪽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도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분노와 증오가 안개 구름처럼 내 앞에 섰다. 분노를 제거하면 알몸으로 남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혼자였다. 이 시점에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내 과거를 회상하였다. 딸은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태어났고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였다. 계속 이런식으로 살면 어디에 있든 감옥에 들어갈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였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내 안에 악을 가지고 있는 한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나를 두려워하였고 나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사랑받고 싶었고 더 이상 나의 분노를 가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분노나 증오 없이 미래로 걸어야 하였다.

몬태나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른 후 2년 반동안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 인권 단체에 가입하였다.

그것들 중 하나는 인종 차별 그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나는 그들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여전히 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고 얼마 후 나는 폭발물을 가진 채 잡혔고 연방법원에 의해 징역 삼 년을 선고받았다.

연방 교도소에 도착한 직후, 나는 원래 아프리카 출신인 미국 무슬림에게 소개되었다. 감옥에 있는 무슬림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이 행동은 내 주의를 끌었고 나는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종교가 흑인만을 위한 것이며 이 종교의 일원이 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있었던 무슬림들에게 나는 이슬람에 대해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물었다. 한 책은 "이슬람은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였다. 색깔, 인종 또는 민족은 이슬람에 입교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이 종교의 핵심은 원래 평등이었다. 진실과 순결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다. 여기 무슬림 형제들이 나를 금요일 예배에 초대하고 나에게 꾸란을 선물했는데 나는 꾸란의 영어 번역을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것이 진실에 관해 말하는 올바른 책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종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신비로운

가르침도 없었다. 꾸밈없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책이었다. 누구나 스스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알라와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 내 영혼과 마음에서 알라가 싹이 나는 것과 같았다.

나는 꾸란을 계속 읽고 공부하였다. 결국 나는 그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것인지를 믿게 되었다.

세 신을 가진 것이나 과학만을 믿는 것과는 달랐다. 솔직히 그런 종류의 믿음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이슬람에는 하나의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신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알라였다. 그분이 보내신 꾸란은 1400년이 지난 지금 글자에 한 변경없이 현재까지 도달한 기적을 보여준다.

성경은 완전히 달랐다. 오늘까지 도착한 원본이 없었으며 매일 매일 계속 바뀌어왔다. 알라가 하나, 종교가 하나이고 알라께 복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내 인생은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가득 찬 인류 역사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나는 잘못과 실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자신을 이슬람에게 항복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슬람을 설명하는 것에 전념한다. 나는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지나간 잘못된 길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이슬람에 항복함으로써 그들의 증오와 분노를 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기를 바란다. 영혼이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성벽 밖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영원한 감옥으로 간다. (이것으로부터 알라에게 도피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네 벽 사이에서도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하며, 결국 당신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강하거나 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이 산 인생에 대해 심판될 것이다. 아무도 내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지금 진실과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예언자 무하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분의 종이자 사도이다. 이 진실을 보게 된 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알함두릴라, 나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졌다.

알라가 우리에게 준 평화 외에는 평화가 없다. 모든 찬양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그분의 종으로서 계속할 것이다 인샤알라.